

中蘇의 平和共存이 北韓外交에 미치는 影響

국통 75-3-16
(한글) 5/5

1975. 5.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5.

慶北大學校 平和問題研究所

李 宇 榮

目 次

(一) 序 論	3
(二) 蘇聯의 平和共存論理	6
1. 革命과 平和共存論	6
가. 政權維持와 平和共存	6
나. 平和戰略과 限定共存	10
2. 限定共存의 支柱	15
가. 戰略과 革命輸出論의 變遷	15
나. 局地戰爭과 民族革命에의 支援	19
(三) 中共外交와 平和共存 論理	24
1. 外交政策의 基調	24
2. 中共의 平和共存	30
3. 中共의 隣接國觀	35
(四) 中蘇論爭과 自主路線	39
1. 論爭과 矛盾	39
2. 北韓의 自主路線	45
(五) 北韓外交와 中蘇의 機能	53
1. 北韓의 對蘇紐帶	53
2. 北韓의 對中共紐帶	58
(六) 結 論	65
1. 金日成의 中共訪問	65
2. 威脅의 常存과 對備策	71

(一) 序 論

國際情勢가 複雜해지고 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이데올로기」나 政策 如何에도 不拘하고 共產主義國家間의 關係에도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狀況變化의 가장 두드러진 特色은 科學。 技術 또는 核武器等 「이데올로기」에 對해서는 中性的 性格을 가지고 있는 諸要素가 現實的 國際關係 또는 社會關係를 크게 規制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共產主義諸國은 「맑스·레닌」主義 또는 從來의 共產世界內의 諸條件에 얽매어 있었던 定型的, 一義的인 世界에서 벗어나 漸次로 보다 可動的이며 多義的인 關係에로 發展해가고 있는 即 共產圈의 多元化 現象인 것은 周知되는바 事實이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時間과 空間을 超越한 普遍妥當性을 維持하려면 그것이 이와같은 不可避한 變化에 對應할만한 寬容과 伸縮性이 그 前提條件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맑스」主義는 非妥協的인 絶對主義的 價値體系 때문에 無限히 變化하고 複雜해지는 現實앞에 그 權威와 有効性을 喪失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嚴密한 意味에서 볼때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共產黨 또는 「이데올로기」問題와 國家關係는 區別해야 할 것이다.

勿論 現實的으로 이 兩者間에는 相互依存關係가 있기 때문에 確然

히 區別하기는 어렵지만 理論的으로는 前者가 階級原理에 基礎를 두고 있는데 反하여 後者は 國際政治와 國家論的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맑스·레닌」主義에서는 이 兩者間의 關係에 對한 明確한 理論的 究明이 없기 때문에 國際共產主義運動은 矛盾과 混亂을 거듭해 왔다. 이는 애초 革命輸出을 否認하며 各國革命은 個別的으로 遂行할 것을 期待한 「맑스」의 말로 보더라도 現實的인 國境에 依해서 制限을 받게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境遇 階級的迎帶와 國家主權 또는 國家利益을 어떻게 調節시킬 것인가? 「레닌」은 民族自決의 原則을 承認하되 恆常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優先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國家 理性을 超越한 이 高次元的運動의 原理는 現實的으로 國家를 超越한 國際的 共產主義運動機構와 그 實効를 保障할 方法이 없었기 때문에 個個 國家 또는 黨의 自律에 一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 原則은 強大國의 大國主義的 支配를 合理化하는 口實으로 利用되어 蘇聯이 危機에 處할 때마다 『社會主義 祖國守護』를 標榜했고 蘇聯의 利益을 爲해서 『社會主義世界 全體의 利益擁護』라는 名分으로 論理가 展開되었다. 이것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이 「이 데올로기」에서 國際政治에로 그 中心體系가 變해가고 있음을 意味한다.

所가 있고 29個가 넘는 核發電所를 建立中에 있다. 萬若 核孤散
이 許容될 수 있는 情勢變化가 된다면 日本은 核武裝을 通해 中
共의 水準까지 肉迫되어 軍事大國으로 登場될 수가 있겠다. 美國
이 實質적으로 日本으로 하여금 亞細亞防衛의 一部 責任을 지라고
한다면 日本은 現情勢로 보아 充分한 重武裝을 가질 것으로 展望
되며 韓日關係에 있어서도 政治·軍事의 紐帶關係가 새로운 課題로
될 것이다.

印支事態以後 美國外交는 現在 새로운 外交政策을 構想하고 있고
慎重한 公的履行과 選擇을 할 것으로 보며 緊張緩和政策의 中斷없
는 前進을 바란다는 「브레즈네프」의 要請을 받아 實質적이고 有
効한 亞細亞政策樹立이 予想된다.

다만 美國의 亞細亞政策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問題는 印支事態
에서의 敗北意識을 亞細亞人들의 「이미지」에서 解消시키는 急先的
인 作業을 할 것이며, 따라서 美國이 亞細亞에서의 새로운 名分을
찾으려 할 것이다. 印支事態直後 美國은 새로운 防衛線을 策定할
것이라는 報道가 있었고 얼마뒤 새로운 防衛線에 台灣과 韓國은
包畵되었다는 論評도 있다. 그리고 美國은 여러 차례 韓美防衛協定
에 對한 公約遵守를 다짐하기도 했다.

여기에 問題點은 過然 美國은 印支事態를 求景만 했든 것인가?

戰後, 大體로 共產主義國家가 追求하고 있는 世界政策을 檢討함에 있어 뒷받침하고 있는 理論的 展開過程은 觀點에 따라 見解는 달리 하고 있으나 兩大理論 背景인 平和共存論과 民族解放論으로 集約되고 있다.

世界赤化의 새로운 侵略形式으로서 蘇聯이 내세운 平和共存 理論은 어떤 것인가? 그 歷史的 背景은 무엇이며, 民族解放戰爭과 世界赤化戰略으로서 그것이 갖는 意義와 그것의 實際는 어떠한가?

本稿는 蘇聯 및 中共의 『平和共存』論을 中心으로 하여 그것과 關係된 몇가지 問題의 解明을 試圖하고 蘇·中共의 『平和共存』의 變化가 北韓外交에 미치는 影響을 比較 分析하여,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問題에 展望과 方向을 究明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課題의 目的이다.

(二) 蘇聯의 平和共存 論理

1. 革命과 平和共存論

가. 政權維持와 平和共存

平和共存이란 뜻으로 蘇聯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것은 平和共生 ($\mu\text{P}\text{H}\text{O}\text{e}\ \text{CO}\text{x}\text{U}\text{T}\text{o}\ \pi\text{b}\text{c}\text{T}\text{B}\text{O}$) 인바 이用語는 「트로츠키」가 最初 사용한 뒤 「체체린」과 「레닌」이 사용하였고 「스탈린」도 1927年頃 사용한 바 있다. 1)

그런데 똑바로 平和共存 ($\mu\text{P}\text{H}\text{O}\text{e}\ \text{CO}\text{CY}\text{III}\text{e}\text{c}\text{T}\text{B}\text{O}\text{B}\text{a}\text{H}\text{U}\text{e}$) 이라는 말을 蘇聯에서 사용하기 始作한 사람은 「트로츠키」의 後繼者인 「체체린」인 것이다. 그는 1920年 6月 17日 『그것이 如何한 政府이든지 他國의 政府와의 平和共存.....』이라 說明하였다. 「레닌」은 이 平和共存의 用語를 사용하기 싫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平和共生이란 用語로 表現했었다. 「레닌」은 平和共存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1922年頃 「레닌」은 平和共存의 實質的인 推進者가 되어 있었고, 「레닌」은 實際로 世界初有의 「프롤레

註 1) Franklyn Griffiths, Origins of Peaceful Coexistence, Survey, No 50, January 1964. pp. 195~201

타리아」社會主義革命을 이룩한 「소비에트」共和國을 周辺 資本主義 諸國이나 帝國主義諸國으로 부터 守護하기 爲해서는 「트로츠키」의 平和共生과 「체체린」의 平和共存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時期的인 方便으로서 나마 世界革命戰略의 論理로 삼았던 것이다.

「레닌」이 Brest-Litowsk 條約 締結時에 「소비에트」의 立場 即 『「프롤레타리아」勢力과 「소비에트」의 生存維持 可能性을 固守하기 爲해서는 世界的인 社會主義革命이 늦어지더라도……』하는 立場이 「레닌·스탈린」의 革命期 平和戰略의 基本으로서 轉전을 굳힌 바 있다. 이러한 世界革命外交는 「브로조아」世界와 「프롤레타리아」世界와의 平和共生이란 點에서 1925年 第14次黨大會와 1927年 第15次黨大會에서도 再確認되었고 이는 「소비에트」平和 外交에 路線이 되었다. 2)

그러나 「레닌」時代나 「스탈린」時代의 平和戰略의 基調論理는 地上에서 資本主義나 帝國主義가 存在하는 限 社會主義와의 戰爭은 回避될 수 없다는 戰爭不可避論인 것이다. 「스탈린」은 1952年

註 2) 「스탈린」의 平和共存論의 展開過程은 尾上正男, 國際關係論 東京: 有信堂, 1970. 9. 29.

最後著書로 出版된 『蘇聯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經濟的 諸問題』
속에 「레닌」과 同一論理로서 帝國主義가 存在하는 限 戰爭은 不
可避하다고 披露하였다. 『戰爭不可避性を 除去하기 爲해서는 帝國
主義를 消滅시킬 必要가 있다』³⁾고 「스탈린」은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1956年 第20次黨大會에서 帝國主義와 戰爭은 不可分에
것이라고 한 「레닌·스탈린」의 戰爭論理는 根本적으로 修正되고
「호루시초프」에 依해 『核戰爭 相互滅亡論』으로 變化되었다.

1961年 第22次黨大會에서 採択된 新黨綱領⁴⁾은 第20次黨大會의
路線을 繼承하여 더욱 具體化한 內容으로 『社會主義革命은 꼭 戰
爭과 關聯되고 있지 않다』 『帝國主義者들에 依해 始作된 兩次的
世界大戰은 結局 社會主義革命으로 終了되었지만 革命은 戰爭없이도
possible한 것이다』⁵⁾라고 確認한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호루시초프」時代의 後半에 이르러 한걸음 더
나아가 『戰爭은 宿命的으로 避할 수 없지는 않다』는 것뿐만 아

註 3) 스타-린, ソ連における 社會主義の 經濟的諸問題,
東京:五月書房, 1952. p.49.

4) 前掲 尾上正男, pp.51 ~ 52

5) 民主主義研究会編, ソビエト年報, 東京:大蔵省印刷局,
1969. p.67

나라 『避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双方의 破滅을 가져올
 따름이므로』라고 하게 되었다. 核戰爭에 있어서는 이미 勝者는
 있을 수 없다. 올바른 核戰爭보다는 나쁜 平和가 더 낫다고 자
 주 強調하게 되었다. 6) 그러나 이와같은 戰爭可避論은 「맑스·
 레닌」主義理論의 軸으로 부터 離脱하지 않기 爲해서 露西亞 革命
 普遍說과 適正하게 融合되지 않을 수 없다. 그 結果 平和革命論
 이 세워진 것으로 1961年 新黨綱領은 『有利한 条件下에 勞働者
 階級은 議會에 있어서 堅固한 多數를 獲得하여 議會를 「브로조아」
 階級の 階級的 利益을 爲한 道具로 부터 勞働者들께 奉仕하는 機
 能으로 바꾸어 議회의 院外的 広範한 大衆鬪爭을 開始하고 反動勢
 力の 抵抗을 粉碎하며 平和的인 社会主義革命을 爲한 條件을 가출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蘇聯共産黨은 世界 「맑스·레닌」主
 義 諸政黨과 함께 諸國의 人民的團結을 呼訴하며 国内勢力을 總動
 員하여 積極行動하고 世界社会主義体制에 依存하여 革命에 臨한 諸
 人民의 事業을 帝國主義의 干渉으로 부터 排除함과 아울러 決定的

註 6) Albert L. Weeks, The Other Side of Coexistence:

An Analysis of Russian Foreign Policy

Pitman-Publishing Corporation, New York-London

1970. pp.161 ~ 205

打撃을 加해 帝國主義 反革命輸出을 沮止하는 것을 國際的義務로
한다』고 說明한 것이다. 이는 곧 美蘇兩國의 戰爭은 核戰爭이기
때문에 이를 回避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革命輸出은 民族解放戰爭
을 통해 行使하겠다는 平和革命論이 없다.

勿論 이러한 論理는 社會主義를 標榜하고 있는 中共의 立場에서
본다면 完全한 修正主義가 된다. 이에 毛沢東은 『政權은 銃砲로
부터 誕生된다』는 立場에서 『暴力革命만이 「프롤레타리아」革命의
普遍的인 法則이다』⁷⁾ 고 再強調 되므로서 中·蘇紛爭의 重要論爭
點이 된 것이다.

나. 平和戰略과 限定共存

1960年代 蘇聯外交의 밑바닥에는 두가지의 目的이 內在하고
있는바, 그 하나는 蘇聯을 爲始한 國際共產主義體制의 安全保障을
確保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비록 反共政府라 할지라도 關係를 맺는
다는 이른바 肯定的 할 수 있는 現狀維持 (Status quo) 外交이며
또 다른 外交目的은 新興獨立諸國의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을 促
進하는 所謂 民族解放鬭爭을 支援한다는 否定的 戰略인 것이다.

註 7) 毛沢東選集, 第 4 卷, 戰爭と戰略問題, 東京:三一書房,

1957. p.54

第1目的인 現状維持에 重点을 두고 肯定의 戰略을 取하느냐, 取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蘇聯의 内外情勢에 따라 달라진다. 1960年初期 多少 亂暴은 했지만, 「호루시초프」時代에는 第1目的인 肯定의 戰略에 重点을 두었으나 「브레즈네프·코시킨」政權은 이를 修正하여 第2目的인 否定의 戰略에도 크게 力點을 두지만 肯定의 戰略도 擴大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호루시초프」時代의 党大会와 「브레즈네프」政權下の 党大会를 比較하면 明確해진다. 「호루시초프」時代의 蘇聯外交의 最高目標가 平和共存이든 것이 第23次 党大会(1966年)와 第24次 党大会(1971年)에서는 다른 여러가지 政策目標과 同一하게 取扱되어진 것이다. 第24次 党大会에서의 外交目標은 ① 諸社会主义國家들과 함께 社会主义와 共產主義의 建設을 爲해 有利한 國際環境을 確保한다. ② 社会主义諸國의 團結과 友好關係를 強化한다. ③ 民族解放運動을 支持하며 新與諸國과의 全面的인 協力을 行한다. ④ 社会体制을 날리하는 諸國家와의 平和共存原則을 守護하고 侵略을 反對하여 새로운 世界大戰을 回避한다. 即 平和共存論理는 次第로 格下되고 民族解放運動支援의 次順이 된 것이다. 이것은 곧 目標로서의 平和共存이 아니고 戰略的인 平和共存으로서의 移行되어진 것으로 받아 드려진다.

이러한 變化를 把握해서 美國의 蘇聯研究者인 「브르제스키」教授는 平和共存에서 限定共存 (Limited Coexistence)⁸⁾ 으로의 移行이라 하고 『蘇聯이 西方側에 窓門을 열고, 美仏 그리고 西獨이 東方側으로 窓門을 열려고 한 平和共存이 西方側보다 自己自身으로 하여금 危險한 것이라는 結論을 내린 것이다. 그 結果 蘇聯은 限定 共存이란 政策을 選擇하게 된 것이다』고 指摘하고 있다. 또한 「로스」教授는 이 變化를 攻勢的 平和共存 (Offensive Peaceful Coexistence) 으로의 移行이라고 規定했다.⁹⁾

이상과 같은 變化를 좀 더 具體적으로 檢討해 본다면 限定共存에 支柱가 되는 것은 첫째로 核戰爭에 關한 認識 變化가 생겨 從來 한번 核戰爭이 勃發하면 人類는 滅亡한다고 生覺되었던 것이 人類는 반드시 滅亡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된다. 1963年 1月 16日 「호루시초프」는 東獨社會主義統一黨 第6次 黨大會에서 演說을 通해 『萬一 帝國主義者들이 核戰爭을 開始한다면 그 結果 戰爭을

註 8) Zbigniew K. Brzezinski, meeting Moscow's Limited Coexistence, The New Leader, December 16, 1968, pp. 11 ~ 13

9) Richard F. Rossor, An Introduction to Soviet Foreign Policy, Prentice-Hall, N.J., 1969, p. 343

일으킨 資本主義體制은 不可避 滅亡한다는 것은 疑心할 余地가 없
다. 그러나 過然 社會主義諸國, 社會主義를 爲한 關爭事業은 核熱
의 破局에서 利益을 取得할 수 있을 것인지, 意識的으로 事實을
直視할 수 있는 사람들 만이 生覺할 수 있는 바 「맑스·레닌」
主義者는 世界文化의 中心部가 廢虛위에 核熱에 汚染되고 荒廢된
地上에 共產主義文明을 建設할 수 있다고 生覺할 수 없다. 數 많
은 國民들은 物理的으로 遊星으로 부터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므
로 社會主義의 問題도 消滅되어 지고 마는 것이다』¹⁰⁾ 하는 核戰
爭 共同滅亡論인 것이다. ¹¹⁾ 이는 一國利益이 꼭 他一國에게 損失
이 될 수 없다는 Non-Zero-Sume-Game이 思考方式의 基盤이 되
었다 볼 수 있다. 勿論 이러한 思考方式은 한편 蘇聯軍部에게는
받아 드릴 수 없는 論理임도 事實이었다. ¹²⁾

그러나 「브레즈네프」政權에서는 急變하여 核戰爭이 勃發하더라도
人類는 全滅되지 않는다는 理論이 生成되고 『第3次 世界大戰이

註 10) Pravda 紙, January 17. 1963

11) 太田博, ソ連の核戰略理論と SALT, 日本「國際問題」誌,
1970年7月(124号), p.23 ~ 24

12) Tomas W. Wolfe, Soviet Strategy at the Crossroads,
Harvard Press, 1964. pp.70 ~ 78

勃發할 수도 있으나, 이런境遇 共產主義가 勝利해서 남고 資本主義에 終止符가 찍힐 것이다』라고 하는 見解로 「호루시초프」時代의 核戰爭 相互滅亡論에서 核戰爭 一方滅亡論으로의 移行인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論理的變化는 從來의 短期戰爭論에서 長期戰爭論으로의 變化라 말할 수 있다. 「호루시초프」時代는 萬一 核戰爭이 勃發된다면 아주 短時日에 ICBM을 中心한 速決戰爭으로 看做되어 短期戰爭의 重要裝備를 必要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브레즈네프」政權에서는 萬一 核戰爭이 勃發된다면 꼭 長期戰爭化되며 武器의 多樣化와 戰術의 綜合化(陸海空)가 必要하고 通常武器에 充實性이 比較的 強調되는 「브레즈네프」政權의 國防力 強化政策이었다.

세째로 『戰爭이란 다른 手段에 依한 政治의 繼續이다』라는 Clausewitz論¹³⁾의 復活이란 變化라 하겠다. 「호루시초프」時代에는 核戰爭은 政治와 國聯시켜 手段으로 使用될 수 없는 것으로 理解되어 졌으나 「브레즈네프·코시킨」政權에서는 特히 軍部指導層에 依해 Clausewitz論의 支持를 高唱하게 되었다.

註 13) E.H.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 ~ 1939, London: Macmillan & Co., Ltd., 1951. p.109

2. 限定共存의 支柱

가. 戰略과 革命輸出論의 變遷

「소비에트」政權은 成立当初부터 登場된 重大課題는 軍事優先
이야 民生重視냐 하는 兩者択一인바 美国과 같이 一國의 財源이
豐富하다면 兩課題를 同時에 併行해서 追求할 수 있겠지만 蘇聯은
政策決定에 있어 어느 한쪽만을 選擇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現在 또한 重要課題가 아닐 수 없다.

「스탈린」은 第2次世界大戰과 冷戰속에서 軍事優先政策을 取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마렌코프」時代에 核武器의 登場과 相互侵略抑
止力이 實現됨에 따라 消費財政策으로의 転用이 試圖된 바 있었다.
그러나 初期 「호르시초프」는 다시 軍事優先主義를 찾아 軍部の
改編은 勿論 通常軍備編成을 核武力으로 改造하며, 미사일戰力을 整
頓하였다. 그後 「호루시초프」는 軍部와의 紐帶를 通해 自己의
地位를 安全시키자. 漸次 政策転換을 企圖 미사일戰力을 維持하면
서 다만 通常戰力과 軍備를 輕視하게 되어 軍部の 傳統主義와 衝
突하게 된 것이다.

이는 Strategic-Weapon-strategy 또는 biggest-Bang-for
-the-smallest-of-number-rubles-invested라는 理論이 「호로

시 초프」의 戰略論으로 되었다. 換言하면 「호루시 초프」의 戰略論은 Big-Bang-Strategy이었다. 14) 「호루시 초프」政策은 1962年 10月 쿠바事件以後 虛弱性을 들어내어 마침내 1964年 10月 14日 「호루시 초프」失脚으로 連結되었다.

Big-Bang-Strategy戰略은 「브레즈네프」政權에서는 中止되고 所謂 No-less-than-parity-Strategy가 採択되어 美国과 同等乃至는 核 미사일이나 通常軍備保有도 能加할 수 있는 戰力이 絶對必要하다는 均衡以上の 戰術인 것이었다. 그래서 軍事力의 擴充은 過重한 國防費의 增額으로 모처럼 利潤導入方式에 依한 經濟改革에 關한 必要한 資源配分을 갖추지 못해 蘇聯經濟는 停滯되고 만 것이다. 特히 資源配分이 無視된 點은 農業分野로 批判도 적지 않았다.

以上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現在 蘇聯은 民生福祉를 버리고 軍事優先政策을 選擇하여 美国의 軍事力과 對決을 持續하고 있으나 1970年頃부터 多少 民生福祉面에도 資源配分이 考慮되는듯 하지만 戰略面에서는 如前히 軍事優先政策으로 나가고 있다.

註 14) Big-Bang-Strategy에 對해서는 Albert L. Weeks,
op. Cit., pp.166~167.

한편 露西亞革命이 特殊한 民族的事件이 아니고 普遍的인 性格을 가진 것이라 認識하고 있는 蘇聯共産黨은 軍事問題와 아울러 革命輸出問題도 不可分에 關係에 있다. 이 革命輸出論에 對해서는 「스탈린」時代까지는 大概 戰爭 乃至 暴力으로만 成就시킬 수 있다는 所謂 Communism by War 論理였다. 이 理論이 1956年을 前後하여 純經濟競爭을 通해 平和裡에 革命輸出이 可能하다는 所謂 「호루시초프」의 Communism by Example 理論이 나타나게 되었다¹⁵⁾

이 純經濟競爭에서 勝利하여 革命을 輸出한다는 論理는 『홀륭한 社會主義建設』로서의 模範을 實証하므로서 革命은 輸出될 수 있다는 生覺이었다. 그러나 實際 理想과 現實은 너무나도 格差가 甚해 蘇聯社會는 좀처럼 『홀륭한 模範』이 되지 못했다. 1961年에 採択된 黨綱領에 依하면 1970年에는 美國과 同等한 地位에 오르고 1980年에는 共產主義社會에 到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蘇聯 經濟의 伸長率은 多리히 大体 1960年을 高비로 下降하게 되었고 이러한 現象은 蘇聯뿐만이 아니라 東歐諸國의 成長率도 鈍化하게 되

註 15) Michael p. Gehlen, The politics of Coexistence-Soviet methods and motives,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67, p.65.

있는 것이다. 16)

이로서 「호르시초프」政權의 平和革命輸出論은 安易한 生覺이었다고 激烈한 批判을 받게 되고 따라서 「브레즈네프·코시킨」政權은 純經濟競争에서 이겨내 模範이 되도록 努力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軍事援助나 經濟援助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所謂 Communism by Example and War이라는 두가지 政策이 並行되게 되었다. 그런데 「브레즈네프·코시킨」政權의 並立 革命輸出論은 兩立되기 어려운 論理로서 他國에게 軍事援助나 經濟援助를 行한다면 國內經濟의 投資가 鈍化될 수 밖에 없고 國內經濟의 成長을 爲한 資源의 集中化는 對外援助의 余力이 없게 된다.

「호루시초프」는 주로 國內經濟成長을 爲해 集中投資方式이었으나 「브레즈네프」는 國內經濟의 發展을 多少 犧牲시키드래도 軍事·經濟支援을 해야 되겠다는바 이는 『世界革命過程이란 共同利益이 客觀적인 經濟·技術協力の 基盤위에 形成된다』고 「브레즈네프」政權은 現實적으로 認識하고 있다. 17)

註 16) 円羽春喜, 社会主義の ジレンマ, 東京: 日経新書,
1970. p.105

17) D.D. チェグチャリ, ソ連と發展途上諸國との 經濟·技術協力
日本外國商業通報, 1970, 付録 才5号 参照

나. 局地戰爭과 民族革命에 의 支援

蘇聯外交에 있어 革命戰略의 論理的 變化가 가장 具體적인 形態로 나타난 것은 民族解放鬪爭에 對한 積極적인 支援이었다. 이것은 蘇聯의 外交「이데올로기」自体가 變化했다고 하느니 보다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라 卽 蘇聯의 外交는 國內外的인 條件變化에 따른 通用理論으로 獨創적인 政策理論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호루시초프」時代의 平和共存路線에 있어서도 民族解放鬪爭支援은 論理的으로는 決코 排除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平和共存의 一環으로 把握되고 있었다. 그런데 實際 行動은 民族解放鬪爭抑制에 가까웠다. 「호루시초프」時代에는 局地戰爭과 民族解放戰爭은 明確히 區別되어 民族革命戰爭 卽 例컨데 「알제리아」革命, 「큐바」革命 등은 支援했지만 局地戰爭은 核戰爭으로 「에스카레이트」될 危險性 때문에 이를 極力抑止하는 立場을 取했었다. 「호루시초프」는 1961年 1月 6日 『적은 帝國主義戰爭(局地戰爭)은 世界核戰爭이나 미사일戰爭으로 擴張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世界戰爭이나 局地戰爭에 對해 鬪爭하지 않을 수 없다』¹⁸⁾ 고 말하고 있다.

註18) Albert L. Weeks, op. Cit., p. 161.

그래서 蘇聯은 局地戰爭에 對해서는 極히 冷淡한 態度를 取했고 그뿐 아니라 社會主義革命에 直結될 수 있는 民族解放戰爭에 對해서도 같은 態度를 取하는 境遇마저 있었든 것이다. 19)

「호루시초프」時代의 民族解放戰爭의 輕視는 越南戰爭에 對한 越盟支援에서 明確하게 나타나고 있다. 卽 「호루시초프」時代의 約 10年間 (1954 ~ 64)에 蘇聯의 對越盟援助額은 經濟援助가 3 億 5 千萬弗이며 軍事援助는 不過 7 千 5 百萬弗에 지나지 않았다. 20) 그래도 「호루시초프」時代의 前半은 나은 便이었다. 처음에는 中共의 援助에 훨씬 未洽했으나 1958 年頃 부터 經濟援助에 있어서 는 同題이거나 或은 若干 많았다. 그런데 1962 年 「라오스」協定 成立을 契機로 蘇聯은 對越盟 軍事援助를 中斷하고 다시 1963 年 中間쯤에 이르러 經濟援助도 大幅消滅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事情은 越盟이 中共에게 密着되어 버릴 수 밖에 없었던 要因이 된 것이다. 21)

註 19) Eritz Ermarth, The Soviet Union in the Third World; Purpose in Search of power, The Annals, vol. cccclxxxvi November 1969. p.35.

20) Richard F. Rosser. op. cit., pp. 344 ~ 345.

21) Donald S. Zagoria, Vietnam Triangle-Moscow/peking/Hano N.Y. Western publishing, 1967. p.42.

따라서 民族解放鬪爭을 支援하는 蘇聯의 輕視는 中共으로부터 修正主義라고 불리고 北韓으로부터도 痛烈한 批判을 받았다. 22)

그러나 「브레즈네프」陳이 登場되자 純粹한 經濟競爭과 戰爭에 依한 革命輸出論 (Communism by Example and War)에 立脚하여 積極的으로 民族解放鬪爭도 支援하게 되었고 局地戰爭 亦是 才2次 世界大戰後 70余件쯤 發生되었으나 그 어느것도 核戰爭으로 擴大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可及的 支援해도 괜찮다는 理論이 成立되기에 이르렀든 것이다. 結局 局地戰爭이건 民族解放戰爭이건 區別없이 積極 支援하기로 된 것이다.

「브레즈네프·코시킨」政權이 于先 取한 새로운 政策이 對越盟政策에의 轉換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코시킨」이 1965年 12月6日 「하노이」를 訪問, 空對空 地對空미사일과 MIG 航空機를 越盟에 供與했으며 그 後 越盟에 對한 蘇聯援助는 急增한바 1965年의 1年間 2億1千萬弗, 1966년에는 3億6千萬弗, 1967년에는 5億5百萬弗로 增大되었든 것이다. 23)

註 22) John C. Donall, North Vietnam: A Qualified Pro-Chinese Position, R.A. Scalapin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Prentice-Hall, N.J., 1965. pp. 140~179. 參照

23) Albert L. Weeks, op. Cit., pp. 200-201, Richard F. Rossier, op. cit., p. 345.

이는 「호루시초프」時代의 10年間分을 消費한 셈이 된다.

1968年부터 軍事援助는 減少되지만 反面 經濟援助가 增加되었다.

越南戰爭의 段階的 縮少期였던 만큼 戰後再建經濟도 考慮된 듯 하나

1972年 越盟軍의 大攻勢, 美國의 機雷封鎖 등의 強硬措置等 때문에

蘇聯의 軍事援助는 大幅增大되어 最近 越盟이 『1975年3月大攻勢』

를 敢行할 수 있는 軍備가 補充된 것으로 본다. 現在 西方側의

推定으로는 越盟武器의 75% (75年3日大攻勢時)가 蘇聯으로부터

提供된 것이라 보고 있다. 24)

한편 越盟에 對한 援助는 物量的인 것 뿐만이 아니고 精神的援助도 強力히 推進되어 「호루시초프」時代에는 存在치 않았던 認識

인 ① 北이 南을 解放한다. ② 越南解放 人民戰線이 越南의

唯一하고 참된 代表라는 思考方式이 繼續 宣傳되었다. 이는 中共

이 1964年까지는 越盟에 對한 攻擧를 自國의 攻擧으로 看做한다

고 聲明하고 全面支持를 하다가 1965年以後에는 中共領土 以外에

서 싸울 意思가 없음을 表明하고 越盟支援에서 精神的으로 크게

後退했던 것과는 對照的이었다.

한편 民族革命戰爭과 局地戰爭을 極力 支援한다는 것은 實際 行

註 24) Richard F. Rosser, op. Cit., p. 345.

動으로 보여주고 있는 現象은 數年來 海軍力の 擴充과 印度洋進出 및 亞細亞集團安保構想에서도 그 變貌를 들어 내고 있으며 砲臺外交나 現實主義外交는 비록 越盟과 印支半島에 限定된 것이 아니고 北韓이나 「방글라데시」에도 適用시키려는 것 같다. 25)

이러한 現代 蘇聯外交가 民族革命과 局地戰爭을 區別하지 않고 積極支援한다는 것은 75年前半期에 나타난 印支情勢처럼 危險성이 있는 것으로 美蘇軍事競爭에 있어 絶對 優位圈을 占有하려는 戰略인 것 같고 나아가 中共外交에 새로운 戰略과 亞細亞政策에 바람을 불러 일으켜 國際情勢를 매우 흐리게 하는 突風이 憂慮되는 바이다.

註 25) Albert L. Weeks, op. Cit., pp. 242-243 參照

(三) 中共外交의 平和共存 論理

1. 外交政策의 基調

中共의 外交政策은 強·穩 兩面이 있다고 指摘되어 왔다. 中共의 外交政策이 穩健路線을 걸고 있다는 主張에 따르면 中共은 傳統的인 中國과 같이 對外政策의 展開에 있어 受動的이고 防禦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다고 한다. 中共은 本質的으로는 共產國家이므로 國際「프롤레타리아」革命을 追求하지만, 힘의 限界性으로 因해 지금껏 美國의 對中共封鎖政策이나 蘇聯의 壓力에 몰려 自体防禦가 高작이었다. 또한 蘇聯이 共產國家이지만 그 對外政策이 帝政露西亞時代의 그것과 別로 다를 것이 없다는 理由를 들어 中共의 政策도 傳統的인 中國과 같이 受動的이고 防禦的이라고 主張한다. 이에 依하면 中共은 本質的으로 強大國이 아니며 또한 強大國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 中共의 外交政策이 攻擧的인 強硬路線을 追求한다는 主張에 따르면 中共은 教條的인 共產國家이며 窮極的으로 國家利益은 共產主義 本質에 從屬되는 것으로 外交에 있어 最高 理想은 共產主義의 政治哲學을 實現하는 것²⁶⁾ 이라 한다. 따라서 中共은

註 26) 羅昌柱, 中共政治論, 서울: 一潮閣, 1975. pp. 130~131

세계의 赤化를 꿈꾸는 侵略者이며 一切의 國際的인 活動은 世界 赤化革命의 일환으로 判斷하며 中共을 好戰的인 強大國이라 評語한다.

그러면 中共의 外交政策에 있어 目標은 무엇인가? 첫째 ; 外部의 侵略으로부터 國家를 보위하는 國家의 安全保障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때 軍事的으로는 在來式이거나 核武器까지를 包含해서 모두 防禦力의 確保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 國家와 民族의 統一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不平等條約에 依해 侵奪된 領土의 回復까지가 包含된다. 그러나 台灣의 解放은 國土의 統一에 있어 基本的인 要素인 것이다.

셋째 ; 隣接國에 對해선 傳統的인 中國과 같은 地位의 獲得을 試圖한다. 現在 中共은 隣接國에 對해선 外境(Outer Frontier)과 內境(Inner Frontier) 概念²⁷⁾을 가지고 있다. 內境이란 中共의 統治權이 미치고 있는 實際的인 境界線을 意味한다. 이에 對해 外境이란 傳統的으로 中國의 支配를 받았거나 中國의 文化圈

註 27) Francis Watson, The Frontier of China, Praeger 1966. p.79.

에 屬한 地域을 劃하는 線을 意味한다. 따라서 오늘의 中共도 傳統的인 中國과 같이 外境地帶에 對해서는 보다 能動化되는 性向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이 地域에 對해서는 基本的으로 中共 「스타일」의 政權을 만들고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할때에는 中共에 對해 敵對的이 아닌 非敵對化시키려는 努力을 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으로서는 이 地域에 對해서는 緩衝地帶 (Buffer Zone) 을 意圖하게 되는 것이다. 「스카라피노」 (Robert A. Scalapino) 教授에 따르면 오늘의 中共도 傳統的인 中國과 같이 그 周邊國家에 對해서는 매우 예민한 反應을 보인다는 것이다. 現 北京政權에 對해 協調的인 者는 招待하여 盛大한 잔치를 베풀어 주고 經濟, 軍事的 援助라는 名目으로 膳物까지를 준다. 中共은 隣接國에 對해서는 옛날의 中國이나 마찬가지로 繼續 懷柔와 威脅政策을 편다. 中共에 對해서 友好的인 態度를 取하는 者, 무엇보다도 新中國의 文化를 받아들이는 者, 또는 적어도 어떤 威脅的인 意味에서 상도를 벗어나지 않는 者는 報答을 하지만 다른 勢力과 提携하는 者 또는 지나치게 獨立政策을 取하는 者는 憎惡을 만든다는 것이다. 28)

註 28) Robert A. Scalapino, Foreign Polic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Current Scene
1934. 11. p.8

네째로 ; 傳統的인 中華思想과 같이 亞細亞의 宗主國的인 「쇼비니즘」을 實現하려 든다. 그런 關係로 中共의 勢力이 隣接國에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여타의 外勢가 亞細亞地域에 미치는 것은 侵略的인 것으로 看做된다.

다섯째 ; 中共은 超大國 水準의 國際的 地位의 伸張을 試圖한다. 그러나 우선 中國大陸에서 外勢를 追放하고, 國家近代化를 實現한 다음에 隣接國에서 外勢를 追放하여 窮極的으로는 國際「프롤레타리아」革命을 實現하려 드는 것이다.

政權成立 直後 毛沢東의 外交觀은 어떠한가?

첫째 ; 帝國主義 勢力을 中止하지 않을 것이므로 警戒해야 한다. 또한, 帝國主義와 그 앞잡이들의 敵對的인 反中共 음모는 단호히 그리고 철저히 깨끗히 粉碎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둘째 ; 中國人民이 反對하는 것은 帝國主義의 植民地政策과 中共에 對한 陰謀計劃뿐이다. 따라서 中共은 참다운 友好的 態度를 가진 어떠한 國家와도 平等互惠, 領土主權의 相互尊重을 外交의 基本으로 한다. 이같은 毛沢東의 外交構想에 따라 中共憲法은 『中華人民共和國의 外交政策의 原則은 自國의 獨立과 自由, 그리고 領土主權의 保障을 公告히 한다. 國際的인 恆久平和와 各國人民間의 友好協力을 擁護하고, 帝國主義의 侵略政策과 戰爭政策을 反對한

다』²⁹⁾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同 第 55 條는 国民党 反動派와 의 關係를 끊으며 中華人民共和國에 對해 友好的인 態度를 取하는 外國政府에 對해서 中共은 平等, 互惠, 領土主權의 相互尊重을 基礎로 하여 交涉하고, 外交關係를 樹立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같은 基調에 依해 中共의 外交政策은 展開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中共의 外交政策은 毛沢東의 世界觀에 따라 社會主義 國家와의 關係나 其他 諸國과의 關係를 妥當히 活用, 關係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은 오늘의 世界를 ① 發展하는 社會主義 國家 ② 植民地 狀態에서 解放하여 急進적으로 發展하는 開發途上 國家 ③ 沒落하는 資本主義 國家中 3 大類型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中共은 이 3 大體制內에 4 大矛盾이 展開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①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의 矛盾

② 資本主義 國家內에 「프롤레타리아」階級과 「브로조아」階級과 의 矛盾

③ 帝國主義 國家와 被壓迫國家間의 矛盾,

④ 帝國主義와 特權 資本主義 勢力의 矛盾으로 이 4 大矛盾을 開發하는데 中共의 對外政策은 根拠하고 있는 것이다.

註 29) 1954 年 中共憲法, 第 54 條.

따라서 中共이 이들 3大体制에 대해서도 다른 形態의 外交를 펴고 있다.

첫째 ; 社会主義 國家에 對한 關係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에 立脚하여, 社会主義陣營 諸國과의 友好나 相互援助, 그리고 協力關係를 發展시킨다고 한다.

둘째 ; 社会体制가 다른 國家와는 平和 5原則에 立脚하여 外交 關係를 편다.

이들 國家에 對해서는 平和 5原則에 立脚하여 平和共存을 展開하며, 帝國主義의 侵略政策과 戰爭政策을 反對한다는 것이다.

셋째 ; 억압당하고 있는 人民이나 民族과의 關係는 이들의 革命 鬪爭을 支援하는 統一戰線의 形成에 힘쓰고 있다.

이같은 中共의 外交的 基本路線은 9全大會에 낸 林彪의 政治報告에서도 더욱 明白히 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앞으로의 世界는 美帝國主義나 蘇聯社会帝國主義, 그리고 反動國家들의 힘에 依해 世界의 運命이 左右되지 않고, 世界「프롤레타리아」階級과 世界革命人民에 依하여 支配될 것이다』³⁰⁾ 라고 主張하였다. 따라서 中共은 反美·反蘇·反動的 三反鬪爭을 強化하며, 國際「프롤레타리아」

註30) Survey of Mainland China Press, American Consulate General to Hong Kong, 1969.5.1. p.11.

革命을 위한 統一戰線을 形成하는데 네가지 要素를 外交의 關鍵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같은 外交路線을 推進하는 方案으로 우선 政治体制과 政權의 安定을 凶謀하려고 든다. 따라서 对内環境 造成에 基盤하여 國際環境의 造成을 위한 平和共存의 擴大 實現을 凶謀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은 蘇聯과의 關係가 멀어짐에 따라 蘇聯의 加重되는 威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1969年 3月부터의 國境武力衝突은 이를 보다 深刻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蘇聯의 國境에 對한 威脅이나 亞細亞에의 進出의 牽制를 希望하는 것이다.

2. 中共의 平和共存

韓國戰爭에 介入한 中共은 50年代初에는 毛沢東式 革命方式을 隣接國에게 輸出하려는 戰略으로 臨했던 것이다. 그러나 韓國戰爭에서 美國의 強力한 制止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美國이 「종이 호랑이」가 아닌 것을 実感하게 되었던 것이다. 韓國戰爭을 支援함으로써 蘇聯의 信任을 얻을 수 있었던 毛沢東의 強硬路線은 戰線에서 強敵을 對敵함으로써 危險한 狀態에 이르렀고 더욱이 蘇聯은 東北亞의 戰況을 틈타 東南亞로 進出할 수 있는 契機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中國의 外交的 賈祿

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周知되는바 中國은 過去 오랜 歷史를
通해 東北亞나 東南亞·周邊國家에 對해 名實相符한 大國으로 自處
해 왔고 毛沢東의 立場에서도 그 周邊國家가 第3國의 影響圈으로
들어가는 것은 願치 않는 것이다. 이때를 利用하여 東南亞에 進
出하려는 蘇聯의 戰略을 封鎖하여야만 하는 것이 周恩來의 戰略이
었던 것이다. 이때문에 周恩來는 신속하고 신중한 東南亞諸國과의
外交強化가 必要하게 된 것이다.

當時 不安했던 「티벳」地方에 對한 調整과 수많은 亞·阿 非同
盟國家들의 包摂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周恩來은 1954年
4月 印度에 가서 「네루」首相과 中印協定을 締結하였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 中共의 平和5原則 外交가 나타난 것이며
이것은 中共의 平和共存이라는 外交的 基本路線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中共의 現實的인 外交가 퍼질수록 그 性向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 原則은 ① 領土保全과 主權의 相互尊重
② 內政不干涉 ③ 相互不可侵 ④ 平等互惠 ⑤ 平和共存으로 되어
있다 31)

註31) 勿論 이 原則과는 다른 分野이지만 印度의 Panscha Shila
는 仙敎의 5個信條를 이에 比較하고 있다. 即 ①動物을
죽이지 말것 ②주지않는 것은 먹지말 것 ③검소하게 살것
④거짓말하지 말것 ⑤도취되는 음주를 말것.
F. Berber, Lehrbuch des Völkerrecht, Bd. III., 1964,
S. 158.

領土主權의 相互尊重에 對한 規定은 共產國家들이 내거는 基本的인 것이다. 國際聯盟 規約 第 10 條에서 일찍이 保障되었고, 後 1928 年 Briand-Kollogg 條約 (一名 不戰條約) 에 依해서 領土의 不可侵性이 認定되었다. 1932 年의 Stimson 主義는 暴力에 依한 領土併合이나 割讓은 비록 그것이 다른 國家에 依하여 承認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變更은 正當化될 수 없는데 이르렀다. UN 憲章 第 2 條도 이러한 趣旨에서 領土主權의 相互尊重을 規定하고 있다. 蘇聯이 主張하는 『社會主義 國際法』도 西方側의 理論과 符 合되고 있으나, 領土變更의 問題에 있어서는 달리하고 있다.

周·네루會談에서 나타난 平和共存 外交는 1955 年 4 月 「반등」 會議에서 꽃을 피웠다. 周恩來는 『亞·阿會議 10 個國原則』 이 른바 「반등」精神을 基本으로 하여, 亞·阿地域에서 國際統一戰線· 活動을 展開하여 亞·阿地域에서의 反帝, 反植民地鬪爭의 高調를 이 르켰다.

1956 年 9 月 中共은 8 全大會에서 『政治報告에 關한 決議』를 通過시키고, 國政處理의 8 個方針을 提起했다. 그중 第 1 項에서 『偉대한 蘇聯과 各 人民民主國家와의 永遠한, 그리고 깨트릴 수 없는 兄弟的 友意를 繼續 공고 強化시킨다』고 規定했고, 第 6 項에 서 植民地를 反對하고 亞·阿·「라틴아메리카」의 모든 反植民主

義와 民族主權을 保障하는 主張을 支持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中共은 亞·阿地域에서 「라틴아메리카」로 손을 뻗었으며, 亞細亞, 「아프리카」, 「아메리카」 3大陸의 國家를 『民族主義國家』로 總稱하고, 各國의 『民族民主革命』을 策動 支援하기에 이르렀다.

中共은 60年代에 들어 現實主義에 立脚한 實利外交에 눈을 떴다. 劉少奇가 國家主席으로 君臨하던 60年代初半에 있어서 中共外交는 보다 平和共存的 立場을 指向하게 되었다. 따라서 毛沢東이 意圖한 社會主義 陣營과 帝國主義 陣營을 있는 넓은 中間地帶 概念을 60年代에 들어 具體化 했다. 말하자면 3A地域을 開發 途上國家라 보고, 先進 資本主義 國家이면서 中共에게 直接的으로 敵對的인 아닌 國家를 第2中間地帶로 生覺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日本을 비롯한 英國, 仏蘭西, 西獨, 蘇洲, 「카나다」 등이 第2中間地帶에 들어간다는 見解였다. 그리고 中共은 이들 先進國家와도 平和5原則에 立脚한 外交關係를 展開한다는 것이다.

1963年 12月 周恩來는 亞·阿諸國을 巡訪하여 이들 國家에게 幅넓은 微笑外交를 展開하였다. 中共은 「큐바」를 「아메리카」地域의 革命基地로서의 活動을 指導하였다. 이 結果 仏蘭西를 비롯한 多數의 「아프리카」國家들이 中共을 承認하기에 이르렀다.

1964年 12月 中共의 第1次 核實驗은 蘇聯에게 中共을 根本的으로

로 敵對視하게 만들었다. 越南戰이 1965年 美國의 擴大介入에 따라 中共指導部の 戰略論争은 羅瑞卿等 軍部勢力을 去勢시키게 되었다. 越盟에 對해 直接介入을 回避하는 中共의 決定에 反發, 越盟이나 北韓은 自主路線을 標榜하게 되었던 것도 이때였다.

또한 中共의 平和共存外交는 70年代에 들어 보다 具體化되어진 느낌인바 「체코」事態는 中共에게 Warsaw Talk의 再開를 要求케 했다. 1969年 中蘇國境地方에서의 武力衝突은 文化革命으로 피폐된 中共에게 심한 心理的인 威脅을 加重시켰다. 더욱이 1969年 7月 「닉슨」·佐藤共同聲明은 中共을 當황케 했던 것이다. 韓國과 台灣의 安保가 日本安保에 直結된다는 表現이 그들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이와같은 一連의 事態는 中共이 蘇聯의 威脅과 亞細亞 進出抑制를 爲해 西方勢力을 戰略的으로 利用할 必要가 생긴 것이고 또한 美國의 退陣에 따른 亞細亞에서의 힘의 空白을 蘇聯이나 日本勢力이 메꿀 수 있다는 憂慮는 開放外交의 契機가 되었다. 第3世界에 對한 主導權을 掌握하여 反美, 反蘇運動을 強化하고 이들의 支持를 얻음으로써 UN에 加入하고, UN의 普遍性을 利用하여 美蘇에 挑戰코저 하는 戰略으로 臨하게 된 것이다. 美·中共의 接近은 自由陣營 諸國이 다투어 中共과의 國交正常化를 能動的으로 試圖케

誘導했다. 이로써 西方의 資本, 技術을 導入하여 工業發展과 經濟的 落後性을 脫皮한 國家近代化를 促進하겠다는 것이 中共의 戰略이 될 수도 있다. 이때문에 中共의 外交戰略은 伸縮성과 유연성을 띠게 되고, 對西方外交를 開放하여 脫「이데올로기」의 外交를 展開하게 되는 것이다. 事實上 오늘에 있어서는 中共의 國際「프롤레타리아」革命을 短時日에 이룰 수도 없으며, 또한 中共의 外交路線은 漸次 自由의 國家利益 爲主로 發展되고 있다는 것은 注目되는 바이다.

3. 中共의 隣接國觀

傳統的인 中國은 周邊國家에 對해 朝貢과 冊封政策을 누려 왔든 것이다.

毛沢東은 世界 第2次大戰이 끝난 直後 Edgar Snow와의 會談에서 『지난 100年間의 中國 歷史는 外勢의 侵略에 反抗하다가 몸부림치면서 홀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 共產黨은 中國大陸에서 外勢를 몰아내고, 國家 近代化를 實現한 다음 隣接國家에게 外勢를 追放하는 것이 그 基本 立場이다』³²⁾ 라고 主唱한 바 있다.

註 32) Havald C. Hinton, Communist China in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1966. p. 39.

또한 Francis Watson 에 依하면, 오늘의 中共도 傳統的인 中國과 같이 內界와 外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中共의 影響力이 미치는 地域을 內界로 보고, 그 밖에 있는 世界를 外界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現實的으로 中共의 經濟權이 미치고 있는 境界線을 內境 (Innor Frontior) 로 보고, 傳統的인 中國의 支配를 받았거나, 中國의 文化圈에 屬한 地域은 外境 (Quter Frontior) 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中共은 外境안에 있는 地域은 根本的으로 中國의 影響圈으로 生覺한다는 것이다.

또한 Scalapino 教授에 따르면 亞細亞地域의 共產黨들은 組織上의 顯著한 差異가 없어 그들의 革命모델은 中共에게 찾으려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中共의 革命모델의 크게 影響을 줄 수 있는 前提條件은 中共과 國境을 連하고 있을 것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國境이 接한 地域에 對해서는 中共을 聖域化시킨 「게릴라」輸出을 試圖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中共의 戰略이 잘 輸出되려면 結果的으로 落後된 地域이나, 社會, 政治的으로 不安하거나 體制가 不安한 地域에 對해 中共 「스타일」의 革命을 輸出하려는 試圖가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中共의 革命戰略이 크게 影響을 줄 곳은 北韓, 越盟, 「베트콩」, 「파테트·라오」, 泰國의 共產黨, 「크메르·루즈」, 「버마」等に 크게 影響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中共이 그 隣接國家에 對해 取할 수 있는 基本的인 姿
勢와 戰略은 무엇이겠는가?

먼저 그들은 毛沢東 革命方式을 輸出하고, 毛沢東思想을 輸出하려 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옛날의 中華思想을 代替한 것으로 毛沢東思想을 看做하고 있는 中
共으로서는 오히려 當然하다 하겠다. 協助的인 者는 支援하고 非
協助的인 者는 報復을 하는 것이 中共의 基本立場이다. 이와같은
戰略의 일환으로 中共은 國家外交 (State to State), 人民外交
(People to people), 同志外交 (Comrade to Comrade) 를 구사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國交가 樹立된 地域과는 國家間에
正常外交를 展開하지만, 國交가 되지 않는 地域에 對해서는 民間레
벨의 外交方式을 挾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오랜동안의 日本과 中
共關係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어려운 곳에 對하
여는 이른바 中共의 革命的 同志關係에 있는 말하자면 相對國의
現政權에 對해 反對派이면서도 極烈한 反政權分子나 「게릴라」를
浸透 조종하여 現地 政權의 打倒를 誘導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再三 注意해야 할 바는 中共이 國交를 가진 地域에 對
해서는 이같은 人民外交나 同志外交를 驅使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
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3個의 戰略을 複合的으로 展開하려는

것이 그들의 意圖라 하겠다. 말하자면 3 個의 外交戰略을 同時에 複合的으로 驅使하므로써 相對國을 樹立하려 든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같은 現象은 周邊國家에 對해서는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中共은 周邊國家에 對해서는 自己가 美蘇의 超強大國에 反對하는 先鋒將이며, 開發途上國家를 支援하는 厚德한 盟隣邦이라고 自勉하려 든다. 이때문에 中共은 自體의 힘이 不足함에도 不拘하고 長期借款을 開發途上國家에 支援하는 것이다.

上述한 外境地域에 있는 國家는 中共「스타일」의 政權을 만드려는 것이 그들의 原則적인 立場이라 하겠다. 하지만 現實的으로 이것이 不可能할 때는 우선 中共에 敵對적이 아닌 非敵對적인 緩衝地帶로 만드려고 努力하는 것이다.

특히 70年代에 들어 顯著히 나타나고 있는 中共外交의 한 方法은 民族解放戰爭과 平和共存路線을 併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隣邦이 體制나 社會, 政治, 文化的으로 落後된 地域에 對해서는 民族解放鬪爭을 支援한다. 그러나 政治, 社會的으로 發展되고 經濟發展을 期하면서 體制가 安定되고 있는 國家에 對해서는 平和共存路線을 追求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論者들에 依해, 前者의 例를 泰國이고 後者의 例는 印支諸國으로 評價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印支事態以後의 情勢와 中共의 外交는 論者들의 評價를 無色시키고 있다.

(四) 中 . 蘇論爭과 自主路線

1. 論爭과 矛盾

「호루시초프」의 平和共存政策은 端的으로 말해 「紛爭諸問題의 解決手段으로서의 戰爭의 拒否」이며 「他國의 國家機構 또는 生活樣式을 變更할 目的으로 他國의 內政干涉을 拒否하는 原則」이었다. 따라서 平和的 共存이나 아니면 史上 最大의 破壞的 戰爭이나의 兩者択一이 있을뿐 第3의 道는 없다고 보며 萬若 平和的 共存을 択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核戰爭에 全世界가 呑滅될 뿐이며 어떠한 「이데올로기」의 不一致도 平和共存의 障害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³³⁾

當時 「캠프 . 데이비드」精神은 決코 「호루시초프」個人의 主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이는 또 蘇聯共産黨만의 孤立된 見解도 아니었다. 다만 中共과 그 影響下에 있는 몇 나라를 除外

註 33) Nikita S. Khrushchchev, On the Peaceful Coexistence; Foreign Affairs (October 1959), pp.183 ~ 197.

한 主要共產主義國의 共通된 指標가 된 것이다. 34)

그러나 이에 대한 中共은 現代修正主義者가 平和的 共存의 名目
下에 抑壓된 人民이나 被抑壓民族의 革命鬭爭을 制限하고 弱화하며,
나아가서는 이것을 否定하려 하고 있다고 非難하며, 그것은 곧
「奴隸의 論理」 「人民을 마비시키는 阿片」이라고 酷評하였다. 35)

中共은 平和共存政策이란 곧 「階級的 降伏政策」이며, 社會主義制
度와 資本主義制度의 根本的인 對立을 抹殺하고 社會主義陣營과 帝
國主義陣營의 根本的 矛盾을 抹殺하고, 國際的인 範圍에서의 階級鬭
爭을 抹殺하여, 두개의 制度와 두개의 陣營사이의 關係를 全面的
協力으로 바꾸어 버렸지만 敵對하는 두階級은 決코 平和的으로 共
存할 수 없으며, 이러한 政策은 結局 美·蘇 兩強大國에 依한 世
界支配를 爲한 것일 뿐이라 攻讟하였다. (36)

註 34) C.F. Hudson, Richard Lowenthal & Roderick mac
Farquhar, The Sino-soviet Dispute; The China
Quarterly, 1961, pp.56~57.

35) 日本外務省 國際資料部監修, 歐亞協會編: 中·蘇論爭 主要文
獻集, 東京; 日刊勞動通信社, 1965, pp.418~421.

36) 前掲書, p.750.

中. 蘇論爭의 發端은 이같은 現代戰爭의 性格規定에서 始作되었는
바, 일찌기 毛澤東은 原子爆彈에 對해, 이는 「美國의 反動이 人間
을 脅迫하기 爲해 使用하는 종이호랑이며, 보기에는 무섭지만 實際
로는 겁낼 것이 없다」고 하고 「人類의 半 또는 그 以上이 消
滅되더라도 아직 半이 남아 있고, 그 代身 帝國主義는 完全히 殲
滅되어, 全世界에는 社會主義만이 남아서 人口는 또 다시 增加할
것이며 勝利한 諸國民은 死滅한 帝國主義의 폐허위에 훨씬 高度의
文明을 急速히 만들어 資本主義制度下에 있어서 보다 훨씬 훌륭한
未來를 建設할 것이다」³⁷⁾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蘇聯은, 現代戰爭은 낡은 尺度로써는 測수없는 것이라
하고, 萬一 世界戰爭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即時 核熱戰爭이 되어,
莫大한 人民의 죽음, 物的資源의 破壞, 國土의 荒廢化를 免할 수
없을 것이며, 核戰爭의 폐허 위에 새로운 社會建設은 極度로 困難한
일이다」. 따라서 「非情한 賭博을 일삼으려는 것은 自殺의 哲學
에 不過하며, 勞動者階級の 最終目標은 華麗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幸福한 生活을 이룩하는것」이라고 主張하였다.³⁸⁾

註 37) 前掲書, p.1923.

38) 前掲書, pp.1449 ~ 1452.

이같은 現代戰爭에 關한 認識의 差異를 除外하고는 兩者間의 對
 立은 大部分이 資本主義를 打倒하는 方法, 그리고 國際社會에 있어
 蘇聯과 中共이 各己 勢力膨脹의 手段에 關한 對立에 지나지 않는
 다. 蘇聯은 資本主義를 打倒하는 方法으로서 平和的인 經濟競爭과
 資本主義 國家內에 있어서의 階級鬪爭을 主張하는데 反하여, 中共은
 後進地域의 民族解放運動을 積極支援함으로써 先進資本主義 勢力을
 弱화시키고, 이 目的을 爲해서는 戰爭도 不辭할 뿐 아니라 오히려
 戰爭이야말로 가장 確實한 共產主義에의 길이라고 主張하고 있다.³⁹⁾

그리고 中共은 蘇聯의 平和共存路線을 가르켜 美帝國主義와 共謀
 해서 世界를 美蘇兩大強國의 支配下에 두기 爲한 術策이라고 非難
 하는데 對하여, 蘇聯으로서는 中共이야말로 民族解放運動을 自己들의
 目的에 利用하려 한다고 非難하고 中共의 所謂 「第3世界政策」
 및 「中間地帶論」에 攻讐의 화살을 들렀다. 「第3世界」라는 것
 은 美國과 蘇聯을 除外한 資本主義 先進國들을 包括한 名稱인데
 「드. 폴」治下의 仏蘭西와의 外交關係樹立(1964年1月)이 代表的인
 例이며 여기서부터 中共은 美國과 蘇聯陣營을 除外한 世界全域을 「中
 間地帶」라 하여, 이것이 反美·反蘇的이고 따라서 進步的인 勢力을

註39) William E. Griffith, The Sino-soviet Rift;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64. 參照.

形成할 수 있다는 理論을 展開하였는데, 이점이 바로 蘇聯의 攻勢의 標的이 된 것이다. 40)

中共의 「中間地帶論」은 社会体制의 差異를 無視하고 「맑스·레닌」主義의 階級的 立場을 無視할뿐 아니라, 그것을 中共의 大國主義的 政策目的이 要求하는 民族主義的 態度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 그들은 社会主義 陣營을 民族解放運動에 對한 中共의 「헤게모니」 掌握의 陰謀實現에 對한 障礙物로 보고, 이 運動을 世界社会主義体制로부터 分離시키려 한다. 「드·골」將軍을 「파시스트」이며 께 이라고 욕지거리 하던 中共이 그가 北京과의 接近可能性을 보이자마자 美帝國主義에 對한 가장 積極的인 鬪士로 認定하였고, 이런 方式으로 거의 모든 資本主義世界가 中共에 依해서 「中間地帶」로 되어 帝國主義에 對한 鬪士의 資格을 받고 있다. 帝國主義大國인 英國, 西獨, 日本은 이미 이런 資格證明을 받았으며, 그렇다면 萬若 美國의 独占資本家들이 中共修交政策을 檢討함이 自己에게 有利하다고 生覺하고 提案한다면 美國도 또한 「中間地帶」에 包含되어 独占資本主義의 頭目들 까지도 帝國主義에 對한 鬪士의 資格을 얻을 것이 아닌가? 41)

註 40) 中蘇論爭 主要文獻集, pp. 1773 ~ 1774.

41) 前掲書, pp. 1985 ~ 1987.

大概 이러한 疎聯側의 反論이다.

이와같이 「平和共存」에 關한 論争은 「戰爭과 平和」에 對한 意見對立과 共產主義의 基本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敵과 同志」의 概念을 混亂狀態에 빠트리기에 이른 것이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時間과 空間을 超越한 普遍 妥當性を 維持하려면 그것이 時代的 狀況과 不可避한 變化에 對應할만한 寬容과 伸縮性이 그 前提條件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맑스」主義는 非妥協的인 絶對主義的 價值體系 때문에 無限히 變化하고 複雜해지는 現實앞에 그 權威와 有効性を 喪失해 가고 있다.

그래서 共產國內에서는 各國이 當面한 個別的 狀況만큼 現實에 對應하는 獨自路線과 自我意識이 提起된 것이다.

本來 「맑스」主義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와 「파워·폴리틱스」問題를 統括하는 理論이 欠如되어 있기 때문에 現實的인 國際關係에서는 이 兩側面이 混同되어 여러가지 複雜한 問題가 생기므로서 오늘과 같은 分裂이 造成되었다.

「파워·폴리틱스」는 무엇보다도 國家利益과 各國의 特殊條件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國家와 民族의 生存 및 民族的 安全과 威信을 構成內容으로 하는 現實的 必要條件이기 때문에 단지 國際主義原則이란 普遍的 「이데올로기」에 依해서 解消

될 수 없는 문제이다.

毛澤東에 依하면 「世界에 있어서의 모든 差異 가운데에는 이미 矛盾이 内包되어 있으며, 差異란 矛盾」⁴²⁾인 것이다.

共産國家의 諸民族은 階級の 同質性에 基礎하여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해도 發展段階의 差異 또는 民族的 特殊性은 矛盾關係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며, 그 矛盾이 事情에 따라서는 「敵對的 矛盾」으로 까지 發展하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中蘇關係에서 잘 찾아 볼수가 있다. 中蘇論爭이 激化된 1960年 以後 世界共産黨은 이 矛盾때문에 親蘇派와 親中共派, 그리고 自主獨立派로 大概 3分되었다.

2. 北韓의 自主路線

北韓 共産集團의 外交基調는 韓半島의 革命戰略에 嚴格히 服務하고 服從하고 있는 것임으로 對共産圈 및 其他障營에 對한 多樣的 外交目標가 設定된다.

가장 큰 比重은 恒常 中共과 蘇聯을 비롯한 모든 共産國家를

註 42) 毛澤東, 「實踐論·矛盾論」, 東京: 岩波書店, 1962.

韓半島革命의 直接支援軍으로 確保維持하는 데 있다.

韓半島革命은 北韓 共產集團이 基本勢力으로 赤化遂行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戰略計劃은 國際共產主義運動 路線에 立脚해서 共產諸國을 直接的 支援軍으로 編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國際共產主義運動이 蘇聯 中心의 單2 領導體系에서 中共勢力이 增大함에 따라 複數中心體系로 分化되므로서 自主와 自立을 標榜하고 独自の 路線을 選擇하게 되었지만 共產圈을 韓半島革命의 直接的 支援軍으로 編入하고 있는 그들의 戰略計劃을 修正하거나 後退시키는 것이 아니라 補強하는 것이었다.

北韓의 自主路線을 択하게 된 理由は 中蘇對立이라는 主要要因을 들 수 있겠으나, 自主獨立路線이라 해서 中蘇兩國의 行動半徑 論理를 無視할 수 없었던 것도 周知되는 事實이다. 北韓이 1955年 頃부터 中蘇兩大國의 大國主義와 內政干涉으로 부터 自主성과 独自の 路線을 主張해온 試練過程을 檢討해 본다면, 그 裏面에는 大體 세가지 基本路線이 內在해 있다.

첫째, 外勢의 壓力과 干涉으로 부터 金日成 中心의 独自の 權力을 維持하고 政治的 自主성을 回復하자는 것과, 둘째, 이 自主성을 擁護하기 爲해서 自立的인 經濟的, 軍事的 힘을 배양하자는 것. 셋째,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獨的 役割을 遂行하고 國際的 地位를 向

上해보자는 것이다. 이 세가지 背景은 서로 獨立된 內容이 아니라 相互關聯되며 相互作用하는 關係에 있다는 것이 留意할 點은 것이다. 그中 하나는 特히 金日成의 「主体性問題」⁴³⁾로 對內外的인 物議를 이르켰으나 思想事業과 政治・經濟等 各分野에 걸친 對內政策에서 懸著하게 나타나 獨裁體制를 強化해 갔으며, 社會・經濟에 있어서는 蘇聯과 中共의 體制를 模倣하면서도 다른 共產國家에서 그 類例를 찾아 보기 힘든 程度로 急進的으로 改造해 갔다.

이러한 急進政策은 蘇聯의 비위를 건드려, 中蘇紛爭過程에서 北韓이 親中共路線으로 轉換한 뒤에 對蘇攻勢에서 박헌⁽⁴⁴⁾바와 같이 「호루시초프」의 批判을 받았던 것이다.

中蘇紛爭이 兩大國間의 「이데올로기」論爭으로부터 國際政治的 次元으로 變質하게 됨에 따라 金日成의 主体性問題도 커다란 試鍊을 겪게 되어 金日成은 執權維持와 安全의 確保, 軍經援의 獲得이라는 實利와 同時에 兩大國에 對한 名分을 잃지 않기 위해서 中立的 立場을 堅持하게 되었다. 金日成으로서는 「호루시초프」가 推進한

註 43) 金日成選集, 第 4 卷, 平壤, 1964, pp. 325 ~ 354 參照

44) 로동신문, 1963年 10月 28日 字 社說

(社會主義陣營을 옹호하자).

「스탈린」格下運動과 平和共存路線이 그 自身の 偶像化政策과 独裁 權力維持와는 兩立될 수 없으며, 또한 当面된 南北韓對立과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이란 情勢에 비추어 受諾할 수 없는 條件이면서도 蘇聯의 援助는 經濟 및 國防建設에 絶對的 要件이었기 때문에 蘇聯을 背反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의 中立的 態度는 結局 蘇聯이 要求하는 路線을 外面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對한 「흐루시초프」의 制裁는 매우 峻嚴했다. 그後 1964年 10月 「흐루시초프」가 失脚할 때까지 共同步調를 取하고 親中共路線을 追求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北韓의 自主經濟政策에 있어서도 하나의 基本的 命題로 體系化된 것은 1962年以後 부터라고 할수 있는바 自力更生의 理論化였다. 45)

北韓의 自主的 民族經濟建設이라는 自力更生은 ①蘇聯의 經濟援助 激減에 對한 反鏡인 同時에 大國의 政治的 束縛과 對外經濟依存을 脫皮한다는 自覺에 根拠한 것이고 ②自給自足的 經濟體制를 構築하는 것이며 ③中共에서 蘇聯의 經濟援助가 中斷되고 技術者를 撤

註 45) 로동신문, 1963年 4月 23日 社說(自主的 民族經濟의 建設은 祖國統一과 獨立에의 길이다). 參照

収시킨 1960年頃부터 自力更生을 標榜하고 「大躍進運動」을 強化한데서 影響을 받았다. 그래서 中共의 例로 보아 对蘇一辺倒 依存은 極히 危險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의 自主經濟政策은 蘇聯援助가 거의 中斷되고 中共의 援助가 보잘것 없게 됨에 따라 破綻之境에 이르렀다. 이 原因은 北韓이 一般經濟를 犧牲시키고 軍事力 強化에 力點을 둔 1962年以後부터 顯著하게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時期的으로 北韓이 國防問題에 예민한 反應을 보이기 始作한 것은 韓國에서 5.16革命이 일어나 軍事政權이 樹立됨에 따라 北韓은 南北의 勢力均衡을 爲해 1961年 6月29日부터 7月15日 사이에 金日成 自身이 蘇聯과 中共을 訪問하고 「相互協助 및 友好同盟」條約을 締結하여 北韓의 安全을 蘇聯의 核力과 中共의 巨大한 地上兵力에 依해 保障받으려는 努力이었다.

그러나 1962年 10月 「큐바」危機를 契機로 北韓은 軍事政策마저 自力更生路線에 따라 自衛에 두게 되었으니, 이는 몇가지 背景이 內在되었든 것으로 ①蘇聯의 核雨傘의 有効性에 對한 疑問이었고 ②自衛策으로서 「全國의 要塞化와 全人民의 武装化等을 基本軍事路線으로 總力戰이란 戰略的 變化에서 在來式戰爭에 보다 더 重點을 둔 軍事體制를 갖춘데 있다. 그리고 越南戰爭에 依해서도 큰 作

극을 받았다 볼수 있다.

이 自衛路線은 現代 軍事費가 一國의 經濟力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集團防衛란 國際的 趨勢는 北韓의 脆弱한 經濟力으로는 지탱할 수가 없게 되어 파탄된 것이며, 越南戰의 推移로 보아 新武器의 登場과 韓國軍의 派越에 따른 新武器의 導入 및 戰鬪經驗은 北韓의 軍事力을 相對的으로 弱화시키게 된 것이다.⁴⁶⁾

이것이 1965年以後 北韓이 다시 蘇聯에 接近하지 않을 수 없었던 軍事的 理由가 된다. 따라서 北韓의 自立經濟나 自主的 軍事路線은 北韓經濟의 自立에 限界가 있고 現代武器를 自力으로 生産하며 單獨으로 戰爭을 遂行할 能力이 없는限 如前히 蘇聯과 中共의 壓力에 依해 行動半經 論理를 無視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蘇聯은 平和共存路線을 堅持하고 있어 北韓의 赤化統一을 保障하기 爲해 資産과 生命을 破壞에 내맡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中共도 美中共의 政治的 和解 및 美中蘇 相互離脫作用 때문에 北韓의 冒險主義를 放任할 수만은 없겠다.

그러나 北韓 副首相이든 李周淵은 「萬若 戰爭이 暴發하면 우리는 蘇聯의 援助를 期待한다」 그러나 「蘇聯이 同情하든 말든 統一을

註46) 國際問題, 1968年 第2号, 東京, p.50

爲한 計劃을 武力으로 推進한다.⁴⁷⁾ 고 말하고 独自の인 武力統一計劃이 北韓의 軍事的 自己路線인 것처럼 力說한바 있다. 이런 態度는 北韓의 自主路線의 對外的 表現이라 볼 수는 있겠으나 基本的으로 中蘇의 統制된 對立關係를 利用하여 中蘇兩國에 對해 友好關係를 維持·發展시키고자 하는 基本方向에는 變化가 없고 對中蘇 等距離外交에서 實利를 追求코자 하는 속셈이라 볼 수 있다.

한편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北韓은 對中蘇 等距離外交라는 基本方向에 立脚하면서 越南戰爭의 教訓을 通해 漸次 國際共產主義 運動에서 새로운 独自の 役割과 國際的 地位向上을 露骨적으로 들어내어 「모든 兄弟黨들의 完全平等」 「相互尊重」 「自主」 「內政不干渉」 「協調와 團結」을 主唱하고 反美鬭爭路線을 形成하여 平壤·「하노이」·「하바나」를 잇는 三角形을 構築하면서 相互間에 紐帶와 支援을 積極化하고 亞·阿·「라틴아메리카」를 重視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들 地域을 北韓赤化統一戰略⁴⁸⁾의 힘이 源泉으로

註 47) 世界週報, 1968年6月 第18号, 東京, p.35

48) 北韓은 赤化統一을 民族解放鬭爭이라는 각도에서 보고 이 統一의 힘의 源泉을 ①北韓의 社會主義力과 ②韓國內의 統一勢力 ③世界革命 및 平和愛好勢力(反帝, 反美勢力)의 統一과 團結로 본다.

보며 北韓의 独自の 革命路線은 國際主義와 矛盾없이 오히려 世界 革命에 參與하는 것이라 主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現實적인 國際關係에서 提起되고 있는 여러 가지 問題때문에 커다란 制約을 繼續받게 되는바 ① 經濟的 軍事的 力량의 限界 때문에 北韓은 完全한 自立能力을 갖출 수 없고 ② 亞細亞의 緊張과 紛爭이 昌調되어 美國의 強力한 軍事實力이 存在하는 限 北韓의 安全保障은 中蘇支援에 依持할 수 밖에 없으며 ③ 急變하는 亞細亞 情勢下에서 國際共產主義 運動이 從來와 같은 「이데올로기」運動으로서는 対応할 수 없기 때문에 統一・團結의 展望 亦是 稀薄해져 北韓의 姿勢도 漸次로 變化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中蘇의 北韓共產集團에 對한 懷柔와 壓力이 되풀이 되는 속에서 金日成이 標榜하는 獨自路線은 恒常 그들의 主觀的 意志에서 아님 中蘇의 利害關係라는 客觀的 情勢에 左右될 수 밖에 없고 國際的 革命支援勢力을 強化하면서 韓國의 地位弱화를 促進키 爲해 1974年부터 加一層 北韓은 「第3世界에 屬한다」고 自称하며 非同盟中立諸國에 密着하려는 것은 注目視 된다.

(五) 北韓外交와 中蘇의 機能

1. 北韓의 對蘇紐帶

世界第2次大戰後 蘇聯의 好戰的 膨脹主義는 共產侵略을 더 이상 坐視할 수 없다는 美國의 対応措施와 韓國에서의 經驗은 蘇聯의 外交政策의 새로운 方向設定 即 平和共存 政策設定의 動機가 되었다.

韓國戰爭中 蘇聯은 北韓에 對해서 熱誠的인 支持를 보였고, 休戰後에도 北韓의 發展에 歡呼를 보였다. 그러나 表面的인 友誼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國內政策을 둘러싼 不和로 蘇聯과 北韓間에도 緊張이 씩뒸다고 볼 수 있다. 1956年4月 北韓 勞動黨 第3次黨大會에서 傭서버로 參席했던 「브레즈네프」는 當時 計劃中이던 北韓의 5個年計劃에 있어서 工業化의 重點이 무엇인가를 묻기도 하고, 北韓 勞動黨內에서 個人崇拜에 對한 批判을 加했다는 것이다.

한편 個人崇拜는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後 世界共產主義 政治의 重要한 問題였고 反「스탈린」化를 促求했었던 것이었다. 北韓 5個年計劃이 進行되는 동안 金日成 自身이 5차례나 「모스크바」를 訪問하여 蘇聯의 支援을 얻어 들일 수 있었다는 것도 複雜한 關

係에 있었다 본다. 그 後 中蘇對立은 不可避하게 北韓과 蘇聯과
의 關係에 影響을 미쳤다.

中蘇紛爭의 初期段階에서 金日成은 嚴格한 中立的 位置를 採했지만 金日
成은 主体性問題를 強調하면서 中共側으로 기울게 되고, 「흐루시초
프」의 平和共存路線보다 毛沢東의 好戰的인 世界革命 接近策에 好
感を 갖았던 것이다.

當時 「흐루시초프」의 關心이 世界 餘他 地域으로 쏟으므로써
故意的으로 東亞細亞에 對한 外交的介入을 回避시켰다고 하겠으나,
北韓이 公式發表를 通해 中共側에 好意的이며, 蘇聯指導層에 對해서
는 매우 批判的이었으나, 蘇聯은 이에 關与하기를 한사코 避했고
蘇聯言論 亦是 敵意를 表明치 않았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失脚으로 「코시킨」의 極東訪問이 있은
후 對北韓接近의 길이 열렸고 「코시킨」의 平壤訪問直後 經濟 및
武器協定이 締結되며 各分野의 交流도 急速히 膨脹되었다. 그렇지
만 蘇聯側에서 볼때 이것은 政策自體의 轉換이라기 보다는 越南戰
에 對한 美國의 擴大 介入의 対応措施에 따르는 外交方式의 轉換
이었다. 왜냐하면 蘇聯이 前에 比해 韓半島問題를 보다 높은 優
先順位에 두지 않았고, 蘇聯은 韓半島에서의 힘의 均衡 또는 關聯
大國들이 韓半島問題의 解決을 許容할 때까지 韓半島에서의 어떤

문제도 未決狀態로 殘存되어야 한다는 中心的인 立場을 變更하지 않았다.

70年代初 國際政治에 劇的인 轉換이 있기 앞서 蘇聯은 2次大戰後 10年間 北韓에서 누렸던 그들의 힘을 되찾았다. 蘇聯은 北韓이 「모스크바」가 贊成하지 않는 冒險을 저지를 수는 없게 만들었으나 韓半島의 統一에 關한 蘇聯의 姿勢는 周期的으로 變했었다고 보겠으니 50年代初半은 武力赤化統一을 支持支援 했으나 이것이 挫折되자 50年代後半부터 韓國統一은 平和的方式에 依拠토록 主張해 왔다. 이런 關係로 蘇聯은 革命的 方式보다는 平和的인 接近을 強調하는 北韓의 表明에 對해서는 恆常 熱烈한 反應을 보였던 것이다. 特히 1970年11月 勞動黨大會에서의 金日成이 統一先行條件으로 韓國에서의 革命的 鬪爭과 이러한 鬪爭을 支援해야 할 北韓의 義務와 責任의 必要性을 強調한 演說에 對해 蘇聯에서는 注意를 모으지 못했고, 1971年4月 南北韓의 軍縮, 交流같은 平和的方法에 依한 北韓의 平和統一 8個項은 即刻的인 支持를 받은 바 있다.

真正 蘇聯이 韓半島統一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問題는 大端히 「멜리케이트」한 別個問題로 봐야 하겠다. 韓國統一이 共產主義下에서 또한 共產化될 前提 可能性이 있다면 蘇聯 亦是 統一을 바

라겠지만 革命性이나 理念的인 所得없이 兩側의 形式的인 結合은 다른 作用을 이르킬 수 있다. 60年代 韓國問題는 中共의 影響力封鎖를 主目標로 삼는 蘇聯의 東亞細亞戰略과 相互關聯되고 韓國分断은 越南分断과 마찬가지로 蘇聯의 實利로 되어 長期的인 中共 孤立을 持續시킬 수 있었다. 獨逸의 統一이 유럽의 威脅이 될 거라는 事實과 마찬가지로 韓國의 統一 亦是 蘇聯의 極東防衛에 重要拠点으로서 威脅으로 보고 있다.

蘇聯이 中共孤立과 美國의 退陣에 依한 東亞細亞의 힘의 空白을 메꾸려는 試圖에서 亞細亞集團安保의 構想을 實現시키려 하지만 難關에 봉착되어 있고 美·中共의 接近, 日·中共修交等은 蘇聯으로 하여금, 유럽問題 妥結, SALT協定等等 西方側에 많은 讓步를 했으며, 萬一 北韓이 지나치게 中共에 차우치고 있다면 北韓을 說得하는 手段으로 크나큰 負擔을 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오늘날 世界的 資源不足現實과 함께 提起되고 있는 蘇聯의 「시베리아」開發構想⁴⁹⁾과 이에 西方諸國의 參與라는 問題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蘇聯이 生覺해 오던 資源攻勢를 現實化시킬

註 49) 世界週報, “シベリア・極東開發を展望する”, 1974年4月 第16号, 東京, PP.15 ~ 18. 参照

수 있는 与件이 造成되었다는 点이며, 이에 美国과 日本의 「시베리아」開發問題가 促求되고, 表面化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베리아」開發을 蘇聯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데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시베리아」開發에 있어서는 西方側의 莫大한 資本 및 先進技術이 絶對적으로 要求되고 있는바 蘇聯은 「시베리아」開發을 위한 各国의 参与問題를 強大国間의 勢力均衡調整에 利用하려 할 것이다.

實로 蘇聯은 豊富한 「에너지」資源을 保有하고 있으나 生活方式의 改善과 經濟的 特性으로 因하여 「에너지」消費型構造를 이루고 있다는 点에서 世界唯一의 「에너지」自給國이기도 하며, ⁵⁰⁾ 「시베리아」開發을 效果的으로 遂行하여 『資本主義國家 美国을 經濟적으로 能加하겠다』는 「슬로진」을 實現하려 할 것이다. 이 腹案을 實現시키기 爲해 最近의 機械施設, 投資, 勞働力の 增強等を 뒷받침할 수 있는 平和條件을 絶對로 必要로 한다. 이러한 要求는 現在 蘇聯當局이 計劃하고 있는 1970年~90年の 長期經濟計劃을 爲해 軍事力은 크게 制約될 것이며, 蘇聯外交의 平和指向的인 努力은 繼續 強要되어 지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시베리아」極東開

註 50) US News & World Report, 1974. 5. 6 参照

堯이 對北韓關係 및 韓半島를 주요한 極東情勢에 미묘한 影響을 던져줄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長期的 眼目에서 「시베리아」極東地域의 開發이 促求된다면, 이에 따른 極東 및 亞細亞情勢는 새로워질 것이고, 「시베리아」開發過程을 통해 蘇聯의 平和戰略은 相當한 變化가 이룩되겠으나, 對北韓의 支援力量은 漸次 增強되어 對南赤化 戰力을 크게 補強시킬 憂慮가 있다. 80年代를 展望하는 蘇聯外交는 70年代後半 現狀凍結策을 堅持하면서, 平和戰略을 통한 對北韓關係를 繼續維持하면서, 擴戰되어 蘇聯의 負擔을 加重시킬수 있는 要因만은 牽制할 것이다.

2. 北韓의 對中共紐帶

事實上 中共은 지금껏 韓國의 態度와는 關係없이 繼續하여 北韓만을 一方的으로 支援하여 金日成의 後見人 役割을 해 왔다. 이같은 現象은 前述한바와 같이 隣接周邊國家에 中共式 政權을 만드려는 試圖에 基因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最近에는 中蘇紛爭에서 蘇聯에게 北韓을 開放하여 後方の 虛를 찢리지 않겠다는 自衛에서 나오는 紐帶關係인 것 같다.

이때문에 中共은 크나큰 損失과 負擔을 甘受하면서 가지 北韓을 自己便으로 끌어 드리려는 試圖을 보이고 있다.

韓半島에 對해서는 中共은 原則的으로 中共「스타일」의 政權을 만드려고 努力하는 것이나, 이것이 現實的으로 可能치 못했는데 中共의 苦悶이 있다 보겠다. 그러면 過然 現實的으로 金日成이 中共과 蘇聯에 무엇을 要求할 수 있을 것인가? 金日成은 우선 現北韓體制의 安全을 凶謀코저 할 것이다. 말하자면 領土保全과 內政不干渉을 擔보해 주므로서 中蘇兩大國의 틈에 끼어서 實利를 追求코저 할 것이다. 이것은 1968年8月 「체코」事態로 하여금 보다 深刻하게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은 中蘇함께 北韓의 安全保障을 擔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金日成의 觀點에서는 駐韓美軍은 根本的으로 北韓安保를 威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 緩助해줄 것은 바라면서 國際的인 地位向上을 支緩해 줄 것을 希望할 것이다. 그리고 70年代에 들어서는 유럽과 美洲地域에는 蘇聯勢에 조차서 그리고 亞細亞·「아프리카」地域은 中共勢에 便乘하여 對外關係를 擴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窮極的으로 金日成은 中共이나 蘇聯이 그가 主導한 韓半島의 赤化統一戰略을 支援해 줄 것을 希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中共과 北韓과의 紐帶는, 成立 名稱은 다르지만 根本的으로 亞細亞 共產國의 體制이며 毛沢東이나 金日成이 그동안 一人獨

載体制을 構築했다는 것이다. 또한 長久한 歷史를 通해 傳統과 文化의 同質性을 지녔을 뿐 아니라 地政學的인 見地에서도 連帶性을 지니고 있으며, 兩側이 開發途上國家이기 때문에 못사는 나라로서 中共과 北韓關係는 蘇聯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韓國戰爭에서 中共이 支援參戰하므로써 中共은 血盟關係로 굳어진 것이다.

또 한편 毛沢東과 金日成은 武力革命을 信奉하는 好戰性을 지니고 있으며 毛沢東思想이나 金日成主体思想은 前近代的 唯一思想을 繼承하고 있다는 점에서 相互類似性을 지닌 것이다. 北韓이 願하고 있는 要求條件에서도 蘇聯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經濟 및 軍事的援助를 除外하면 中共으로부터 보다 큰 支援을 받을 수 있다는 條件이다.

그러나 70年代의 中共의 事情은 判異하게 되었으니, 現實적으로 中共은 中蘇紛爭때문에 매우 制約的 條件이 따르고 있다. 오늘의 中共은 中蘇紛爭을 통해서만 理解될 수 있겠고 中蘇紛爭을 除外하고서는 70年代 中蘇關係나 亞細亞, 나아가 國際政治의 脈을 풀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이때문에 中共은 蘇聯의 勢力膨脹에 對決키 爲해 美·日을 비롯한 西方側과의 緊張緩和策을 推進하고 있고 核戰力開發에 投資率도 上昇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70年代에 있어 中共에 對한 假想的인 第1敵은 蘇聯이 되어

버렸고, 이러한 觀念은 中共의 行動半徑에 있어 日本이나 美國과의 協力關係로 轉換치 않을 수 없는 動因이 된다고 하겠다. 中共은 美國을 活用하여, 蘇聯의 威脅을 牽制하는데 美國의 力量을 認識하게 된 것이다.

70年代 들어 中共의 對美·對日本과의 協力關係는 눈부신 것으로 貿易面에서 볼때 美國은 1972年 9行5百萬弗, 1973年 9億2行萬弗, 1974年 12億弗로 增加되었으며, 日本과는 1972年 10億弗에서 1973년에는 20億弗로 增加했고 1974년에는 28億弗이 去來되었다. 한다. 더욱이 1976年~1977년에 가면 日本·中共關係 貿易은 50億弗을 넘게 될 것으로 日本經濟界는 展望하고 있다. 萬若 50億이 交易될 수 있다면 그 趨勢는 中共이 日本에 對해 美國 다음으로 第2의 市場이 된다고 한다.⁵¹⁾ 이는 中·日間の 經濟協力이 우리의 想像을 能加하여 매우 接近하고 있다는 証拠라 할 것이다.

또한 70年代에 들어 中共의 資源은 매우 重要한 힘이 되어 있다. 特히 1973年の 「에너지」危機로 因해 石油資源의 問題點은 深刻한 것이 되었다. 1973年 日本은 中共產 石油를 100萬

註51) Japanese Economic Review, No.2., 1974.2.15.

吨 輸入契約했었고, 1974년에는 400萬屯을 輸入, 1975年은 900萬屯을 輸入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같은 趨勢로 가게 되면 1980年代 推定은 2,500萬屯의 石油을 輸入할 것으로 展望되어 中·日關係는 緊密해 진다는 것이다. 한편 日本도 蘇聯과 「투메이」油田을 包含한 「시베리아」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다. 日本의 資本이 「시베리아」를 開發하고 蘇聯의 石油을 極東의 「나고도카」에 보내 日本의 資本으로 精油하여 半分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依하면 1981年에 蘇聯은 5行萬屯의 原油를 「나고도카」에서 精油하여 2行5百萬屯씩 나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1973年現在 蘇聯의 極東地域에 所要된 石油은 700萬屯程度로 推算되는데 1981年에 가서는 2行5百萬屯으로 增加한다는 것은 그동안 蘇聯의 極東地域에 對한 軍事施設이 強化된다는 事實을 意味한다. 蘇聯의 極東軍事基地가 增大된다는 것은 勿論 1次的으로는 中共에 對한 威脅이다. 그러나 經濟大國으로 君臨하고 있는 日本의 國家目標에 對해서도 크나큰 關心거리가 아닐수 없으며 이것은 美國의 對亞細亞政策에 對해서도 重大한 變動인 것이다. 따라서 日本과 蘇聯의 「시베리아」 極東開發計劃은 美·日·中共·蘇聯等 4強의 勢力均衡에 있어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日本이라는 立場에서 볼때도 中共에서 現在 開發되고 있

는 「발해」灣 油田과 大広油田이 순조롭게만 進行된다면 日本으로
서도 커다란 資金을 投入하지 않고 Oil Trouble를 解決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베리아」
開發計劃은 日本・中共・蘇聯의 直接的인 三角關係가 얽힌 複雜한
關係에 있는 것이다.

한편 中共은 1973年 1年間 西方의 「프렌트」를 60件이나 導
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60年代 10年間の 10倍에 該當하는
것으로 그 額面에 있어서도 12億弗에 相當한다는 것이다.

또한 70年代 들어 中共과 日本과의 協力增進은 日本의 再武裝
을 中共이 默認할 수도 있다는 推測을 자아내고 있다. 1971年
8月 周恩來는 「레스턴」(J. Restone)과의 會見에서 日本은 獨
立國이므로 日本이 軍事力을 갖는 것은 當然한 것이라고 지적했으
며, 1972年 9月 田中首相이 北京을 訪問한 直後 日本의 第4次防
衛計劃이 推進되었다는 事實에서도 이 같은 氣味가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이 原則적으로는 北韓을 支援하여 韓半島의 赤化革命
을 希望하겠지만 70年代 中共의 對内外与件이 이를 許諾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때 中共이 取할 수 있는 当面
한 對北韓政策은 毛沢東戰法에 따른 人民革命戰略의 支援의 可能性
은 常存하고 있다. 그러나 이질수 없다고 判斷되는 金日成의 赤

化戰略과 挑発을 支緩치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金日成이 한사코 고집한다면 구태어 또한 말릴 수는 없을 것이다. 前者는 中共의 現實에 基因하는 것이고, 後者는 中蘇紛爭때문에 反感으로 因한 金日成의 親蘇政策으로 偏向되지 않을까 하는 憂慮때문인 것이다.

70年代 中共의 對內外政策이 勢力均衡政策에 基盤을 두고 있는 點으로 보아 中共은 漸定的으로 東北亞地域의 現狀固定化(Stator Qua)를 바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金日成을 무마하려는 手段으로 그에게 對南赤化의 決定的 時期를 誘導키 爲해 南北韓間의 緊張緩和를 해야한다고 권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中共은 北韓을 對美홍정을 벌이는데 사나운 番犬으로서의 存在價值를 부여하고, 北韓은 中共에게 經濟·軍事援助를 請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內 結 論

1. 金日成의 中共訪問

75年 4月은 中共의 周辺國家에 對해선 不幸한 달이었다. 4月 5日 蔣介石總統이 逝去했다. 4月 17日 「크메르」는 「크메르·루즈」에게 降伏했으며, 4月 9日은 越南은 共產軍의 손에 最後에 攻擊을 받게 되었다. 4月 30日 越南共和國의 降伏은 即 印支事態란 用語로서 人類歷史上 悲劇의 새로운 章을 매우게 된 것이다.

印支事態는 毛沢東式 革命戰略이 또 다시 成功한 「케이스」다. 따라서 亞細亞 共產主義者들은 印支事態로 하여금 크게 고무되었고 특히 金日成도 印支事態 때문에 그 自身 一着으로 北京을 訪問했던 것이다. 印支가 共產化 됨에 따라 周辺國家에 對한 中共의 입김이 쏟아져 「라오스」, 泰國에 이르기까지 共產赤化의 危險信號가 오르고 있다. 金日成은 이를 機會로 韓半島에서도 印支式 共產化를 試圖하여 露骨的인 對南戰略을 宣布해 보려고 했다. 그리고 그는 韓半島에서의 印支式 共產戰略의 努力을 中共이 支援해 줄 것을 希望했고 期待를 걸고 北京에 간 것이다. 한편 印支事態로 因해 世界의 耳目이 東北亞에 集中되었고, 특히 韓半島의 安全

이 危險하다는 意味에서의 關心增大는 東北亞에서 問題되든 交替方式에 따른 東北亞「平和定着 方案」亦是 具体化 될수 있는 契機가 된 것이다.

한편 75年 現在の 中共内部 情勢도 金日成을 中共에 訪問케 한 動機가 될수 있다. 1975年1月 穩健派가 軍事指導權까지를 掌握하게 되어 中共의 70年代 對內外的 政策을 主導하는 새로운 指導層이 形成된 것이다. 그런데 穩健派가 軍事指導權까지 掌握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意味를 지니는 것으로 周邊圈 共產黨에 對한 中共의 軍事的 支援이 疑心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또한 老수에 접어든 毛沢東과 周恩來체제의 限界線도 嚴然해졌고, 真正 中共이, 韓半島에서 美軍이 撤収하기를 願하고 反擊할 것인가 하는 데 對해서도 疑問이 生겨진다.

萬若 韓半島에 對한 強大國의 交替承認에 依해 「平和定着」이 이루어져 버린다면 金日成이 노리고 의치든 對南武力赤化는 無色될 것은 事實이니, 바로 이것이 金日成의 早急性과 苦惱인 것이다.

金日成은 對內的으로 戰爭準備 完了, 75年은 革命勝利의 해, 印支事態의 韓半島化等等 主唱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內 政府批判을 親共勢力의 運動으로 看做하였고 오직 對南革命基地 備築에 血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印支事態에서 보인 毛沢

東式 共產戰略은 어느 「人民戰爭論」 「解放戰爭論」 「中間地帶論」
어느 하나도 要件에 符合될 수 없는 韓半島情勢는 金日成의 希求
하는 中共支援에서 軍事的 援助를 크게 期待할 수 없게 했다.

한편 北韓의 經濟計劃의 蹉跌이 招來될 수 있는 展望이다. 最
近 北韓은 相當量의 外債의 督促을 받고 있으나 支払不能으로 對
外的 國際信用度를 喪失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5年 4月現在 北
韓의 外債總額은 19億弗 程度라고 한다.

이와같은 与件에서 金日成은 北京에가 여러가지의 利益을 圖謀코
져 했음은 事實이다. 金日成은 먼저 印支式으로 韓半島의 赤化를
希望하며, 強大國間의 相互 交替承認에 따른 韓半島의 「平和定着」
을 抑止할 必要를 느껴 努力했을 수 있다. 또한 駐韓美軍의 撤
収와 第30次 UN對策等を 協議하면서 中共과 北韓 指導層間의 紐
帶를 強化해야겠음을 느껴 軍事專門家를 隨行케 하였다. 따라서
金日成은 困窮에 빠진 北韓經濟 即 外債督促과 6個年計劃의 蹉跌
을 매꿀 수 있는 經濟支援을 中蘇로부터 誘導해야만 할 問題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1974年 100萬屯의 中共產 石油를 輸入하
였든 北韓은 200萬屯의 輸入을 1975年에 서둘러야 한다. 이러
한 政治·經濟的인 側面뿐만 아니라 軍事面에 있어서도 金日成은
中共을 訪問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印支事變後 나타날 美國의

對韓軍事援助를 予想하고 다른 形態의 現代武器와 對南赤化 總力戰이 可能할 수 있는 軍事援助이었을 것이다.

金日成은 北京 到着後 「戰爭이 일어나면 잃은 것은 軍事分界線이고, 얻는 것은 祖國의 統一이다」라고 하며 「兩韓에서 봉기가 일어나면 北韓은 支援하겠다」는 등 매우 好戰的인 發言으로 對南武力侵攻의 意圖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中共側 代表 鄧小平은 「韓半島의 外勢의 干涉없는 統一을 支持한다」는 등 比較的 平和論理에 立脚한 對答이었다. 그리고 金日成의 對南侵略野慾에 對해 支援의 意思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그 事態는 美國이 支援하는 韓國은 認定할 수 없다는 말을 받아 韓半島의 平和定着方案을 根本적으로 瓦解시켜 버린 것이다.

金日成은 4月 25日밤 歡送會席에서는 到着聲明과는 달리 「雙方 人民의 共同鬪爭에 對한 活力素的인 契機가 되었다」고는 하였으나 韓半島統一에 對해선 言及을 避한 것 같다. 이에 對해 鄧小平은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支持한다고」力說했다.

이에 金日成의 9日間 北京訪問期間中 中共과 金日成의 意圖가 달랐거나 距離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月 28日에 發表된 共同聲明을 미루어 볼때 中共과 北韓은 原則的 見解는

비슷하나 現實的인 立場과 与件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의 北京訪問으로 印支式 對南戰略試圖는 原則的으로 挫折되었거나 難關에 부딪치게 된 것으로 觀測된다. 그러나 韓半島의 交替承認式 平和定着 可能性은 完全히 瓦解되어 버린 것 같다. 바로 여기에 金日成은 中共訪問의 成果를 얻었을 것이다.

強大國의 交替承認에 따른 韓半島 平和定着 方案이 瓦解되었다는 것은 韓半島의 情勢를 緊張시키는 要因이 된다.

金日成은 이제 繼續하여 韓半島에서의 合法性을 主張하며 自己主導에 따른 統一을 主張할 수 있는 根拠와 口實이 생겼다.

4月28日 共同聲明은 韓半島의 統一에 金日成의 主導權을 再確認했고 U.N軍司를 解体할 것과 駐韓美軍의 撤収를 強調하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北韓은 台灣解放을 爲한 中共의 主張을 支援한다고 力說함으로써 中共은 台灣問題와 韓半島問題를 같은 範疇에서 生覺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分명한 것은 이 共同聲明은 韓半島의 自主的인 平和統一을 다짐하므로써 中共과 金日成의 立場이 다르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있다.

萬若 金日成이 對南總力戰을 挑発할 時 中蘇는 過然 어떤 立場을 取할 것인가?

70年代 中共의 對內外政策 方向이 努力均衡政策에 基盤하고 있

다는 것을 考慮할때 暫定的으로 東北亞地域에 美軍의 駐屯을 希望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 根拠는 美軍의 撤収는 韓國과 台灣海峽에 對해 蘇聯의 軍事力進出이 予想되기 때문이다. 또한 情勢變化는 日本의 再武裝을 促進하게 될 것이고, 日本再武裝의 促進은 核武裝을 통한 中共과의 直接 對決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美國을 利用해서 蘇聯의 亞細亞進出을 抑制코져 한것이 中共의 意中이라면 東北亞에 對해 美軍駐屯은 希望하게 될 要件이 된다. 다만 金日成이 對南全面挑發을 일으킨다면 中共은 매우 深刻한 處地에 突入하게 되고 萬若 中共이 介入된다면 外交적으로 孤立을 招來하게 될 것이며, 經濟적으로 莫重한 負擔을 自招할 뿐이다.

한편 蘇聯과 合同해서 北韓을 支援하며 介入하게 된다면, 이는 蘇聯의 東北亞介入의 度를 強化시키는 結果로서 中共은 諸般分野에 再次 退潮되고 만다. 金日成의 好戰性에 中共만이 同調 介入하게 되면 亦是 北方國境의 危險性과 東南北亞地域의 蘇聯의 自衛的 軍事行動은 中共의 後方隣接國을 잃게 된다.

이로서 金日成의 對南全面總力戰은 中蘇兩大國의 直接介入을 期待할 수 없고 短期的 速決戰以外는 金日成의 力量만으로는 不可能하다. 그러나 全面戰은 現實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으나 相對적으로 局地戰이나 「게릴라」戰의 可能性은 增大될 수 있겠고, 政治·社會

文化・經濟・軍事等 諸分野에서의 不安造成을 통한 「게릴라」浸透工
作으로부터 對南戰略에 機會를 엿볼 것이다.

以上에서 中共이나 蘇聯이 金日成의 全面南侵企圖를 支援함에 쉽
사리 決定할 수 없는 것은 中蘇紛爭과 現今의 國際情勢에 基因되
는 것으로 본다. 印支事態에서 보여준 印支의 共產化戰略은 中蘇
兩大國이 中蘇紛爭과는 關係없이 共同支援을 誘導할 수 있었으나,
韓半島에 對한 金日成의 希求는 오히려 中蘇紛爭 때문에 큰 障害
가 되고 中蘇兩大國은 自衛權과 直接 關係되는 深刻한 問題가 되
는 것이다.

2. 威脅의 常存과 對備策

오늘의 國際情勢는 매우 複雜하다. 그것은 多元化한 國際關係
에서 各國이 모두 제각금 實利追求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그 態
度가 變化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際情勢의 方向을 左右하는 中心試力을 이루고 있는 것
은 美・蘇・中共 三角關係이다. 그런데 이 三角關係가 最近에는
힘의 均衡을 찾아 서로 複雜한 交錯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方
向을 予側하기가 매우 힘들다.

中蘇論爭은 國家利益 中心으로 날이 갈수록 高調되어 領土問題를

中心으로 武力충돌이란 国境紛爭이 빈발했다.

이와같은 中蘇紛爭關係는 美·蘇의 平和共存關係와 反比例되어 美·蘇의 協助가 漸次로 上昇하는데 비해 中·蘇紛爭은 惡化된다. 中蘇間에 금이 가기 始作한 것은 여러가지 理由가 複合되어 있지만 그중에도 美蘇의 平和共存關係 助成이 가장 重要한 要素가 되었던 것은 事實이다.

이 平和共存關係는 따지고 보면 蘇聯이 自國의 利益을 爲해 對西方政策을 轉換시킨 것으로서 蘇聯은 對外政策에 있어서 對美 平和共存을 가장 優先적으로 生覺하여 所謂 民族解放戰爭이 局地戰에서 擴大되어 平和共存關係를 크게 害칠 憂慮가 있다면 이 解放戰爭을 犧牲시킬 수도 있다는 原則인 것이었다. 이에 中共은 이를 指摘하여 蘇聯은 自國利益을 爲해서는 兄弟國을 犧牲시키고 帝國主義와 合作한다고 非難하며, 中共은 民族解放戰爭을 積極支援해 나갔다.

그런데 70年代에 들어서면서 美·中共接近은 特히 北韓共產集團의 強力한 反美鬭爭 支援力量의 一時的 弱화를 予見하게 되었다.

따라서 強大國들이 勢力交錯關係가 얽혀 있는 紛爭地域에서의 紛爭에 直接衝突을 回避하고 現狀固定化를 認定하려는 趨勢는 北韓共產集團의 韓半島 赤化革命戰略에 또 하나의 障害要因으로 抬頭되었다. 그러나 世界多數國家들이 紛爭地域 및 分斷國家들이 안고 있

는 問題들을 当事者間에 解決할 것을 바라며 分断國家들에게 同等
權을 認定하는 傾向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는 北韓共產集團에게
韓半島問題의 民族内部化를 促進시켜 赤化革命遂行에 決定的 障害가
되는 美軍撤収의 壓力으로 利用할 수 있는 有利한 條件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따라서 70年以後 73年까지 사이에 北韓은 美軍撤収 前提의 南
北間 平和協定 또는 南北間에 平和協定을 맺고 美軍을 撤収케 한
다는 平和戰略이 있으나, 1974年 3月25日 北韓은 休戰協定을 對美
平和協定으로 代替할 것을 主張하고 韓·美間 離間의 길까지 마련
하여 韓國軍 現代化計劃에 蹉跌을 招來하려는 企圖였다. 그런데
또 다시 1975年 新年辭에서 金日成은 勞動黨 創建 30周年을
맞이하는 해라는 것을 強調하고 「革命과 建設에서 이 해를 革命
歷史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해야 한다」고 指摘하고 모든
힘을 千里馬運動을 훨씬 能加하는 「速度戰」 「突擊戰」에 集中시
켜 6個年計劃을 10月10日前으로 早期達成케 하고 軍事面에 있어
서도 4大軍事 路線 貫철과 防衛力強化는 勿論·特異한 것은 非武
裝地帶內의 地下抗道를 10日10日까지 完工할 것을 目標로 定했다
는 것은 印支戰爭을 미리 予測하고 對南武力赤化를 爲한 段階的
設定인 것 같다. 이렇게 볼때 75年을 金日成이 全面戰爭을 挑

發하기 爲한 決定的인 해로 內定한 것이 推理된다.

그러면 金日成이 당면한 与件에서 選択할 수 있는 對南戰略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事實上 現在情勢로 보아 金日成이 全面南侵을 敢行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武裝「게릴라」를 浸透시켜 韓國內部の 革命이라 宣傳하고 政治的 社會 混亂을 惹起시켜 革命造成方法을 取할 것이다.⁵²⁾

示威와 暴動을 선동 造作하는 것과 武裝「게릴라」의 大量浸透로 革命拠点確保를 하는 것은 印支事態처럼 革命勢力 要請이라는 口實으로 大規模的 支援事業을 통한 革命成就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北韓의 對南戰略工作에 對備하는 가장 核心的인 要諦는 政府의 安定과 社會秩序의 不亂한 維持라고 할 수 있다.

武裝「게릴라」의 大量 南侵을 섬멸하기 爲하여 鄉軍組織의 有機的인 機能을 發揮할 수 있게 함이 必要하고 武裝도 適正하게 充實化 되어야겠다. 따라서 政府를 不信하고 示威를 일으켜 왔든 大學街의 安定이 緊要하며 젊은 世代의 不滿의 所致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 是正되어야 하겠으며 젊은世代의 철저한 國家觀 確立에 힘써야 하겠다.

註 52) 慎道晟 國土統一院長官：國土統一顧問會議에서의 印支事態에 관한 報告，東亞日報，1975年 5月 14日 字 參照

그리고 政治人들의 極限的인 發言과 行動은 政局의 不安을 招來하는 民心을 政府로부터 離脱케 하는 것으로 國論 統合과 總和團結을 害치게 된다. 따라서 政府는 物理的인 方法의 治療策보다 이를 預防하는 充分한 事前措置로 所謂 input와 output의 關係를 注視하는 政治過程이 要求된다.

특히 젊은世代의 精神的인 支柱를 再定立하기 爲해서는 教科目式 勝共教育이나 理論的인 理解度 增進보다 印支事態에서 얻은 敎訓을 바탕으로 率先垂範할줄 아는 集團訓練을 통한 訓育이 이룩 되어야겠다. 必要하다면 北韓의 青年近衛隊처럼 夏季休暇中 野營訓練과 集團生活를 통해 精神訓育에 힘써야겠고 学徒護國團組織 같은 自發的인 自治會의 組織運營도 檢討됨이 좋을것 같다.

個人的 慾求 乃至 一團의 利益을 擁護하기 爲한 目的으로 國家利益이 事實上 無視된다는 從來의 風土와 社會不条理 現象은 是正 되어야만 하겠다.

오늘날 強大國은 隣接國과의 關係를 特殊하게 設定하려는 強한 傾向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發想된 것이 所謂 特殊利益이라는 것이다. 그럼 強大國家들이 韓半島에 對한 特殊利益을 追求하는 것이 過然 무엇이겠는가?

中共은 韓半島에서 가지려는 特殊利益을 軍事的·政治的인 것으로

集約할 수 있겠고 周辺情勢에 根本적인 큰 變化가 없는限 基本的으로 現狀維持政策에 帰着되지 않을 수 없다. 蘇聯 亦是 韓半島에 對해 明確한 政策選定을 公式적으로 提示하고 있지는 않지만 緊張緩和와 現狀維持를 爲한 現實主義政策이라 보여진다. 다만 中蘇紛爭에 있어 中共의 第1의 敵이 蘇聯으로 表面化되고 있어 蘇聯은 台灣과 韓國을 戰略的 主要對線國으로 삼을 것이 짐작된다. 萬若 蘇聯이 韓國과 緊張緩和를 圖謀하여 「시베리아」開發問題와 連結시켜 東海, 南海를 通해 印度洋에 進出하고 西太平洋上에 까지 進出할 수 있는 條件이 造成된다면 近年 韓國의 北方外交에 있어 서의 好意的인 反應을 보여 韓國과의 關係는 緊張緩和의 成功的인 結果를 나타낼 것이다.

이는 帝政露西亞時代부터 蘇聯의 宿望이었던 亞細亞 進出의 꿈이 實現될 수 있는 것으로써 中共孤立의 戰略的 基盤이 構築될 수 있다. 이에 反해 北韓과 中共도 孤立姿勢를 벗어나기 爲한 對日本關係에 움직임도 燃過될 수 없는 것이 되겠으나 日本은 이러한 情勢에 발맞추어 經濟力量에서 政治力量으로 國際的地位 확보를 爲해 軍事的인 核武裝化를 試圖할 것이다.

實로 日本은 第4次 防衛計劃이 끝나면 世界 第6位의 軍事大國이 되며 日本은 現在 核力의 平和的 利用方面으로 9個의 核發電

所가 있고 29個가 넘는 核發電所를 建立中에 있다. 萬若 核孤散
이 許容될 수 있는 情勢變化가 된다면 日本은 核武裝을 通해 中
共의 水準까지 肉迫되어 軍事大國으로 登場될 수가 있겠다. 美國
이 實質적으로 日本으로 하여금 亞細亞防衛의 一部 責任을 지라고
한다면 日本은 現情勢로 보아 充分한 重武裝을 가질 것으로 展望
되며 韓日關係에 있어서도 政治·軍事의 紐帶關係가 새로운 課題로
될 것이다.

印支事變以後 美國外交는 現在 새로운 外交政策을 構想하고 있고
慎重한 公的履行과 選擇을 할 것으로 보며 緊張緩和政策의 中斷없
는 前進을 바란다는 「브레즈네프」의 要請을 받아 實質적이고 有
効한 亞細亞政策樹立이 予想된다.

다만 美國의 亞細亞政策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問題는 印支事變
에서의 敗北意識을 亞細亞人들의 「이미지」에서 解消시키는 急先的
인 作業을 할 것이며, 따라서 美國이 亞細亞에서의 새로운 名分을
찾으려 할 것이다. 印支事變直後 美國은 새로운 防衛線을 策定할
것이라는 報道가 있었고 얼마뒤 새로운 防衛線에 台灣과 韓國은
包畵되었다는 論評도 있다. 그리고 美國은 여러차례 韓美防衛協定
에 對한 公約遵守를 다짐하기도 했다.

여기에 問題點은 過然 美國은 印支事變를 求景만 했든 것인가?

② 美国이 자랑하는 「自由民主主義型」에 對해 開發途上國家에서 의 苦憫을 比較시켜 우리 의 努力은 理想追求가 아닌 對共產戰線에 서의 生存權守護임을 認識시켜야 한다.

③ 對美外交는 長短期的 眼目에서 短期的인 面은 韓半島의 緊張 緩和와 우리 의 安保外交로 總力을 傾注할 것이고 長期的인 面은 美国의 새로운 對亞細亞政策을 洞察하여 우리 의 地政學的인 有利한 條件을 參酌해야 할 것이다.

이 세가지 境遇를 모두 平和的 統一問題와 關聯시켜 그 適正한 對備策을 國土統一院에서 研究되어져야 할 것이다.